

아주 좋은 날

AJU QUARTERLY MAGAZINE
2016 AUTUMN • VOLUME 46

cover artist

HA TaeIm

하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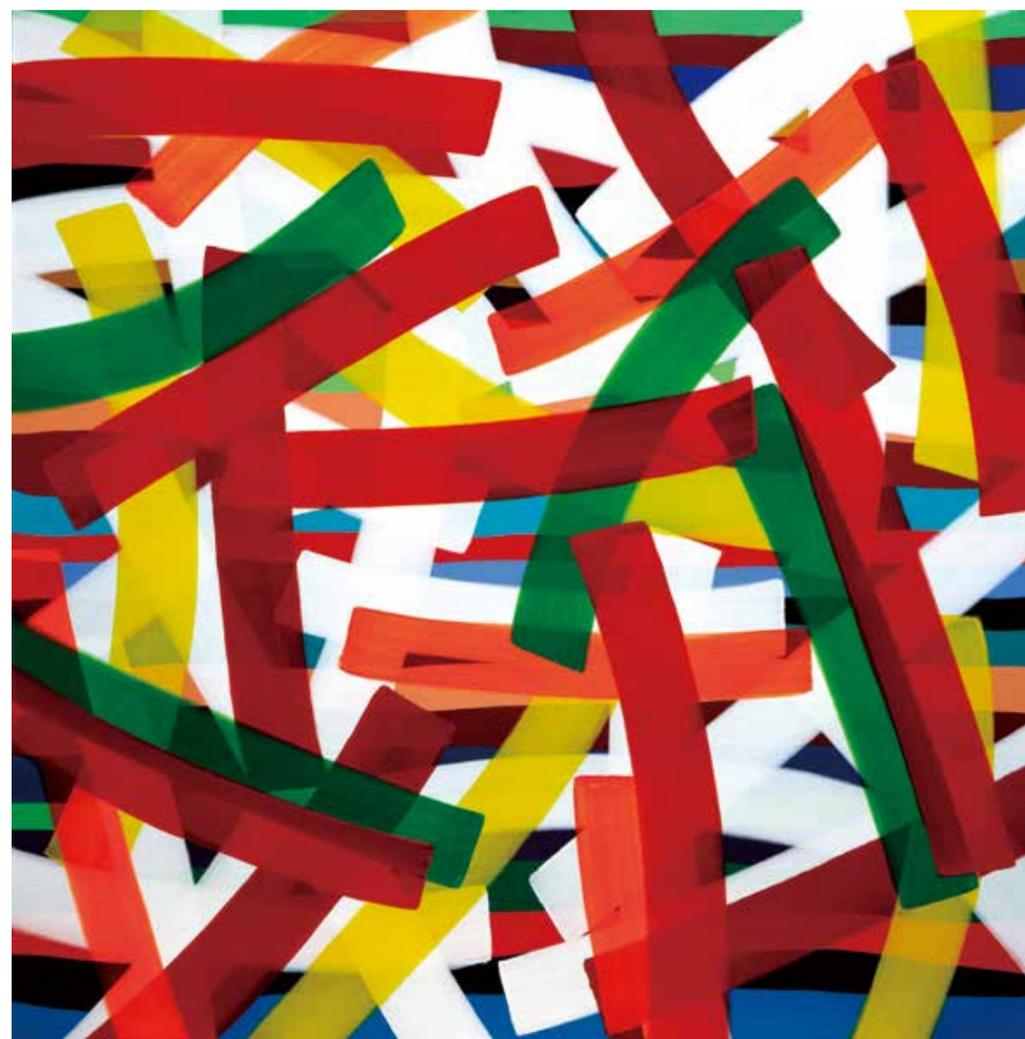
하태임은 대표적인 젊은 추상미술 작가로 손꼽힌다. 프랑스 디종 국립미술 학교,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다니던 유학 시절 캔버스에 컬러밴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생각으로 색깔에서 얻은 영감과 개인적 경험을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노란색은 빛, 찬란한 기억, 아이디어의 원천을 의미하며, 흰색은 순결함, 고독, 연두색은 싱싱함과 휴식 등을 상징한다. 색채에 감정을 담아 위로와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태임. 속도감과 긴장감 그리고 입체감을 더해가고 있는 그녀의 작품들이 더욱 기대된다.



아주그림 매거진 『아주 좋은 날』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다운받아 보세요.



ISBN 978-89-98482-95-4
ISBN 978-89-98482-77-0 (세트)



화려한 색채의 축제, <통로(Un Passage)>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색채. '컬러밴드'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 영역을 구축해 온 하태임 작가의 작품이다. 작가는 수십 번의 붓질로 색채를 포개고, 그 위에 다시 그리는 작업을 통해 생동감 넘치며 조화로운 작품을 그려 낸다. "제 작업의 핵심은 조화에 있습니다. 이 조화란 감추어진 색채와 드러난 색채가 만들어 내는 조화를 의미하며, 화면에 병치된 붓질의 다양한 패턴은 화면에서 구조적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의 발단은 가시적인 색채가 비가시적인 어떤 인상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념을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Un Passage> 시리즈는 컬러밴드의 중첩과 교차를 활용해 관람객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고 자유로움을 선사한다.

1. HA Tealm, Un Passage, 200x200cm, Acrylic on Canvas, 2013
2. HA Tealm, Un Passage, 90x90cm, Acrylic on Canvas, 2016
3. Ha Tealm, Un Passage, 130x200cm, Acrylic on Canva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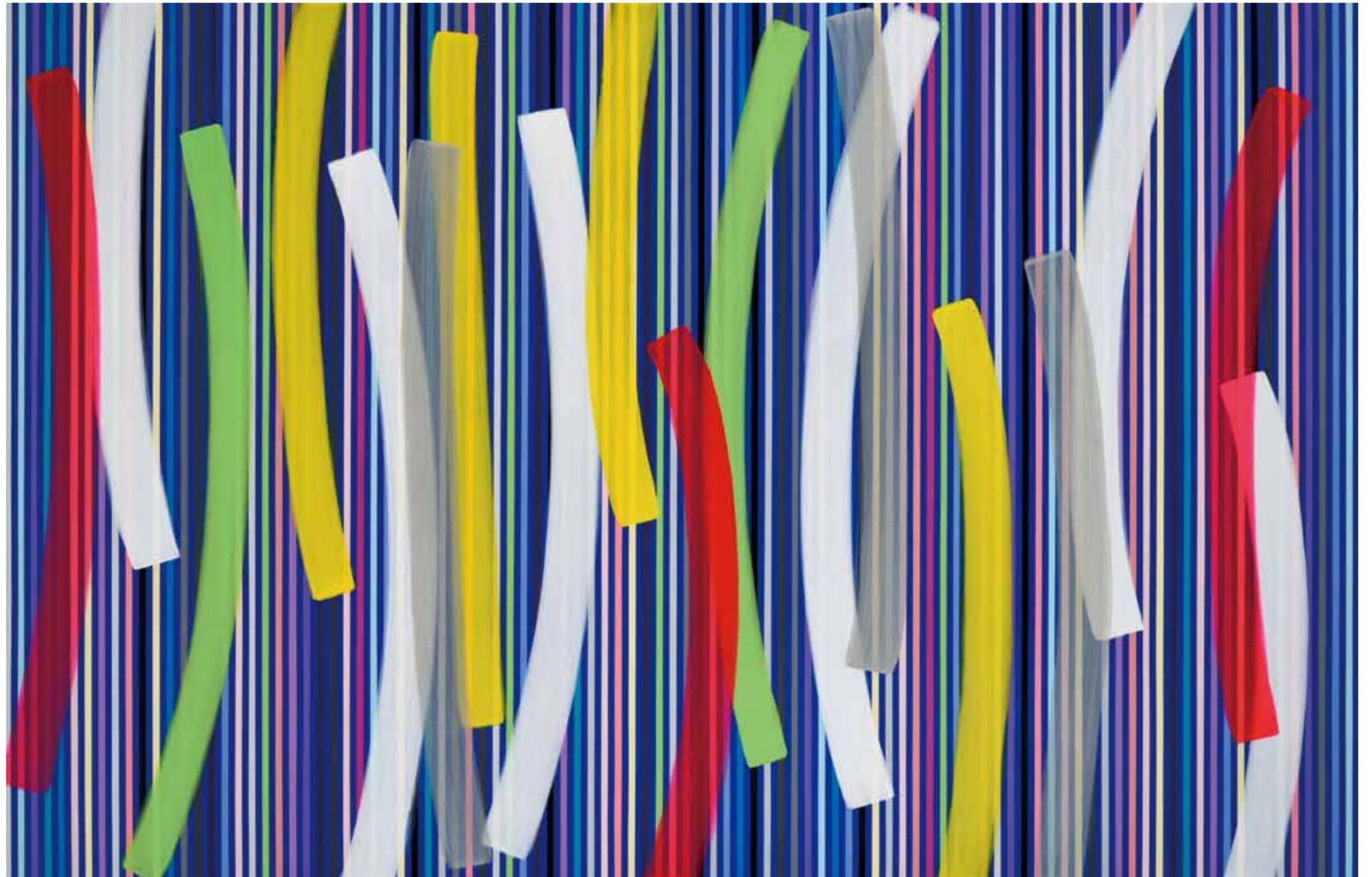
표지. Ha Tealm, Un Passage, 200x200cm, Acrylic on Canvas, 2008
뒤표지. Ha Tealm, Un Passage, 130x130cm, Acrylic on Canvas, 2014
작품 문의. 에이루트 아트플랫폼 aroute.co.kr 02-6958-7777 help@aroute.co.kr



1



2



3

‘다양한 생각’의 융합, 새로움을 창조하다

요사이 ‘융합’은 대세를 지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분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전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융합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분야는 작은 경쟁력을 가지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개념이 합쳐진다면 더 큰 경쟁력과 파급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번호에서 준비한 다양한 생각의 융합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날



『아주 좋은 날』은 다 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갤러리와 같은 매거진을 추구합니다. 예술과 문화, 인문학적 바탕을 통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품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02	gallery	‘다양한 생각’의 융합, 새로움을 창조하다
08	opinion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대가 온다
10	insight	세상을 바꾸는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운 특별한 모임!
14	people	클래식, 이토록 조화로운 다양성의 공존 피아니스트 신수정
18	curator's choice	다양한 생각, 세상의 이면을 탐구하다

Section 2.	Now + Moment	
21	road trip	캐나다 ‘메이플로드’를 가다
26	trip gourmet	비옥한 땅, 캐나다를 맛보다
28	motor story	도심 속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다!
32	favorite things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 김남운 원장의 여/가/식/미
36	scene of object	외계인과 순수한 우정을 나누게 한 결정적 매개체 허쉬 초콜릿

Section 3.	Aju + Style	
39	aju spirit	56년 아주, 아주 특별한 혁신을 생각한다!
44	aju sharing	우리의 땀방울이 일궈 낸 소중한 가치
48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52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AJU QUARTERLY MAGAZINE

2016 AUTUMN
VOLUME 46

발행일 2016년 10월 17일(통권 제46호) 발행처 아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안그래픽스 편집 이미리 디자인 박단비 인쇄 삼성문화인쇄 등록번호 서초 바00148호

『아주 좋은 날』은 계간으로 발행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날』은 한국간행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주 좋은 날』에 실린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아주 좋은 날』의 자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본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좋은 날』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기 연락처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오감을 깨우는 색다른 빛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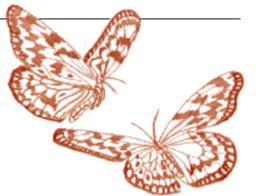
팀랩
TEAM LAB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날개의 모양을 변화시키며 공간을 날아다닌다. 나비는 비단 한 군데서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으로도 자유롭게 넘나든다. 꽃이 피어나면 나비는 꽃으로 모여들고, 관람객이 나비를 만지면 생명을 잃기도 한다. 관람객의 개입으로 상호 작용을 일으키며 실시간 새로운 풍경을 그려 내는 이 작품명은 <경계 없는 군집 : 무리를 지어 나는 나비>. 틀이라는 개념을 허물고, 관념의 경계를 한계 없이 넘나드는 작품을 만든 이들은 일본의 디지털 아트그룹 팀랩이다.

2001년 결성된 팀랩은 프로그래머, CG 애니메이터, 건축가, 웹디자이너, 수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디지털 아티스트 그룹이다. 이들은 작품과 체험자 간의 '공동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독창적이면서 실험적 예술 세계를 보여 준다.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 도쿄 오다이바 등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오감을 깨우는 색다른 예술이라는 평을 받으며 전 세계인을 매료시켜 왔다.

작품과 작품, 작품과 관람객 그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통해 관람객이 곧 주인공이 되는 이들의 전시회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2016년 3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난 8월부터 우리나라 롯데월드에서 '팀랩월드' 상설전이 열리고 있는 것. 물리적, 개념적으로 초월할 수 없는 디지털 세계에 예술을 접목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팀랩은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롯데월드에서 '팀랩월드' 상설전이 열리고 있다. 팀랩월드는 아이들의 예술적 표현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이 많이 있어 꼭 다녀와야 할 전시회로 손꼽히고 있다.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팀랩의 작품을 볼 수 있다.



© teamLab

Convergence & Diversity

'다양한 생각', 새로움을 창조하다! 한 우물만 파던 시대는 지났다.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심도 있게 연결하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다. 다양한 생각이 만들어 낸 창의적인 변화를 소개한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사람 중심의 공장

페라리 마라넬로 공장 FERRARI FACTORY. MARANELLO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페라리가 오늘날 많은 이의 판타지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기까지는 훌륭한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 외에 또 다른 원동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직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페라리의 경영 철학이다. 그들의 경영 철학은 페라리의 핵심 공장이 있는, 이탈리아 마라넬로 시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마라넬로 시의 페라리 공장은 연면적 약 24만㎡에 이르는 거대한 생산 단지로, 엔진 제작, 도색, 조립, 테스트 등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공정이 이루어지는 페라리의 심장과도 같은 장소다. 이곳은 '공장은 건강에 해로운 곳'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기를 든다. 실제로 방문해 보면 식물원인지 공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페라리를 만들어 내는 최첨단 시설 주변으로 1,0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페라리 공장에 풀 냄새가 채워진 건 2007년부터. 더 놀라운 건 식물 중 하나라도 시들거나 죽게 되면 즉각 조업을 중단하고 정화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력이 단지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이 일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진정한 움직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페라리는 공장 내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은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와 함께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명성을 갖게 했다.

이탈리아 마라넬로에 위치한 페라리 공장은 페라리 뮤지엄 웹사이트를 통해 투어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 후 6개월간 유효하며, 티켓 종류에 따라 페라리 박물관, 공장, 트랙 견학과 F1 시뮬레이션 체험, F1 타이어 교체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museomaranello.ferrari.com





공간의 경계를 허문 건축에서 다양성을 배우다

요시노 유아·유치원
YOSHINO NURSERY SCHOOL AND KINDERGAR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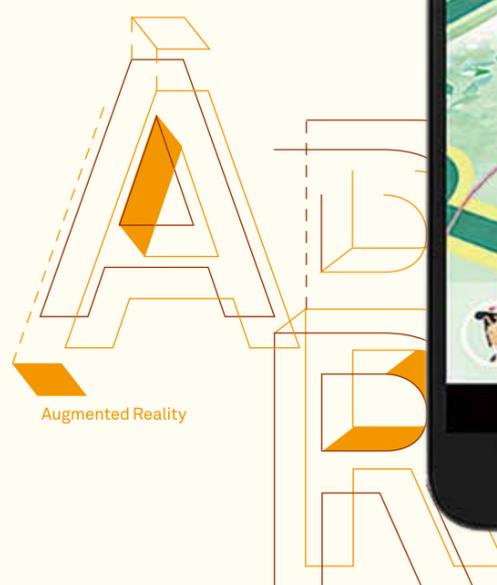
미취학 아동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은 어려서부터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건축가 부부인 데즈카 다카하루, 데즈카 유이가 설계한 유치원은 일본에서도 특별한 교육기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7년 지어진 후지 유치원과 2015년 완공된 요시노 유치원이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고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는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에 있다. 건축가는 아이들만의 특성을 파악해 도넛 모양을 닮은 유치원을 디자인했다. 안이 둥글게 뚫린 타원형 구조에, 지붕은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뚫린 중앙의 둥근 잔디밭을 교실이 동그랗게 둘러싼 형태로 배치했다. 외벽은 안과 밖이 잘 보이도록 유리문으로 만들었는데, 이 유리문을 쪽 열면 교실은 바로 열린 공간이 된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역시 나무로 만든 지붕이다. 아이들은 마음껏 지붕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기도 하며, 중간중간 심어 놓은 나무를 타기도 하고,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 주는 등 자유롭게 놀며 하루를 보낸다. 공간이 오픈되어 있으니, 통제 또한 하지 않는다. 막힌 공간에 아이들을 두면 아이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데, 공간의 경계가 없으니 아이들은 긴장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성격 그대로를 내보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은 경계가 사라진 옹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배우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표현하며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다.

지붕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남쪽을 향해 기울게 설계했으며, 한쪽 끝은 땅과 맞닿게 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0m를 움직여, 다른 유치원 아이들에 비해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대가 온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세계 안으로 들어가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을 상상한 대표적 인물은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 깁슨이다. 1984년에 펴낸 공상과학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에서 깁슨은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를 매트릭스(Matrix)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컴퓨터 통신망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을 지칭하기 위해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글. 이인식



Augmented Reality

최근 증강현실 게임으로 화제가 된 <포켓몬 고>



컴퓨터 안의 3차원 세계
『뉴로맨서』의 주인공들은 신체의 각 부분을 로봇의 부속품처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뇌에 이식된 소켓에 전극을 꽂음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로 들어간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사람의 뇌와 컴퓨터 통신망을 연결해 형성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활동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로 매개되는 통신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적인 공간’이다.
사이버스페이스처럼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3차원 세계에 사용자가 몰입해 그 세계를 구성하는 가상의 대상들과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기술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라 한다. 이를테면 깁슨은 가상현실과 같은 의미인 사이버스페이스 개념을 창안한 셈이다.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는 인터넷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묘사하기 위해 창안한 개념인 사이버스페이스가 정보 사회의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은 아무래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가상현실(VR)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재러니어가 처음 만들었다. 그는 작곡가가 되려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나 결국 컴퓨터에 미친 괴짜였다. 1960년생인 그가 1989년에 VR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자 <뉴욕타임스>에 대서특필되어 러니어는 20대에 이미 세계적인 명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VR의 가능성은 현실 세계의 가능성만큼이나 무한대이므로 그 응용 분야 역시 광범위하다. 비디오게임 등 오락 산업에서부터 건축 설계 등 공학 분야와 모의(Simulation) 시체 등 의료 부문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건축가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새로

설계한 건물이 어떤 모습이 될지 3차원으로 고객에게 보여 준다. 고객은 가상 건물의 내부를 이리저리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외과 의사는 컴퓨터로 환자의 시체를 모의해 수술 연습을 할 수도 있다.
가상공간 디자이너가 뜬다
VR은 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상 예술(Virtual Art)의 출현으로 2차원 화폭에 그리던 화가는 가령 구글의 틸트 브러시(Tilt Brush)를 사용해 가상공간에서 3차원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는 실제의 재료로는 만들 수 없는 온갖 형태의 작품을 창조한다.
VR 기술은 원격 조작(Teleoperation)과 결합하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우주 공간, 바닷속,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현장처럼 사람이 갈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



Virtual Reality



영화 <매트릭스> 속 코드화되어 보이는 가상현실 매트릭스의 실제

는 기계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제어하는 것을 원격조작이라 이른다. 원격 조작되는 기계가 로봇이면 원격로봇이라 한다. VR 기술과 로봇 공학이 융합하면 원격로봇은 사람의 지각과 판단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반면에 사람은 로봇으로부터 촉감이나 힘의 되먹임(Feedback)을 받게 되므로 로봇이 있는 현장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 곧 원격존재(Telepresence)의 감각을 갖게 된다.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활동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공간 디자이너(Virtual Habitat Designer)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6년 8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 컨설팅업체 ‘미래연구소(Future Laboratory)’와 함께 10년 뒤인 2025년에 각광받을 직업 10가지를 소개한 <내일의 일자리(Tomorrow's Jobs)>를 펴냈는데, 이 보

고서에서 가장 유망한 미래 직업으로 선정한 것은 다름 아닌 가상공간 디자이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의 성공
한편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을 혼합하는 기술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990년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라고 명명된 이 기술은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을 합성해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기술이다.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의 이미지에 가상 물체의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완전한 가상 세계를 전제로 하는 VR과는 달리 사용자가 실제 환경도 볼 수 있다. 따라서 AR은 VR보다 현실감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AR 기술을 스마트폰에 응용한 게임인 <포켓몬 고(Pokemon Go)>가 2016년 7월 출

시되어 세계 방방곡곡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AR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포켓몬 고> 게임의 성공 요인은 증강현실 기술이 전문가 아님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포켓몬 캐릭터의 위력이 입증된 셈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1929~2007)가 1981년 펴낸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설파한 것처럼, VR과 AR의 발전으로 현실이 거의 전부 시뮬라시옹, 곧 ‘위조된 현실’로 대체된 세계에 살면서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시뮬라시옹), 원본과 모조품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글쓴이 이인식은 과학칼럼니스트로, 현재 지식융합연구소장, 문화창조아카데미 총감독, 청색기술연구소장, 인공지능 문화포럼 대표로 활동 중이다.

세상을 바꾸는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운 특별한 모임!

죽란시사 VS 준토클럽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다재다능한 융합 인재로 손꼽히는 다산 정약용과 벤저민 프랭클린. 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 나누고 펼쳐 나갈 특별한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운 특별한 모임을 소개한다. 글 정성희 일러스트 민지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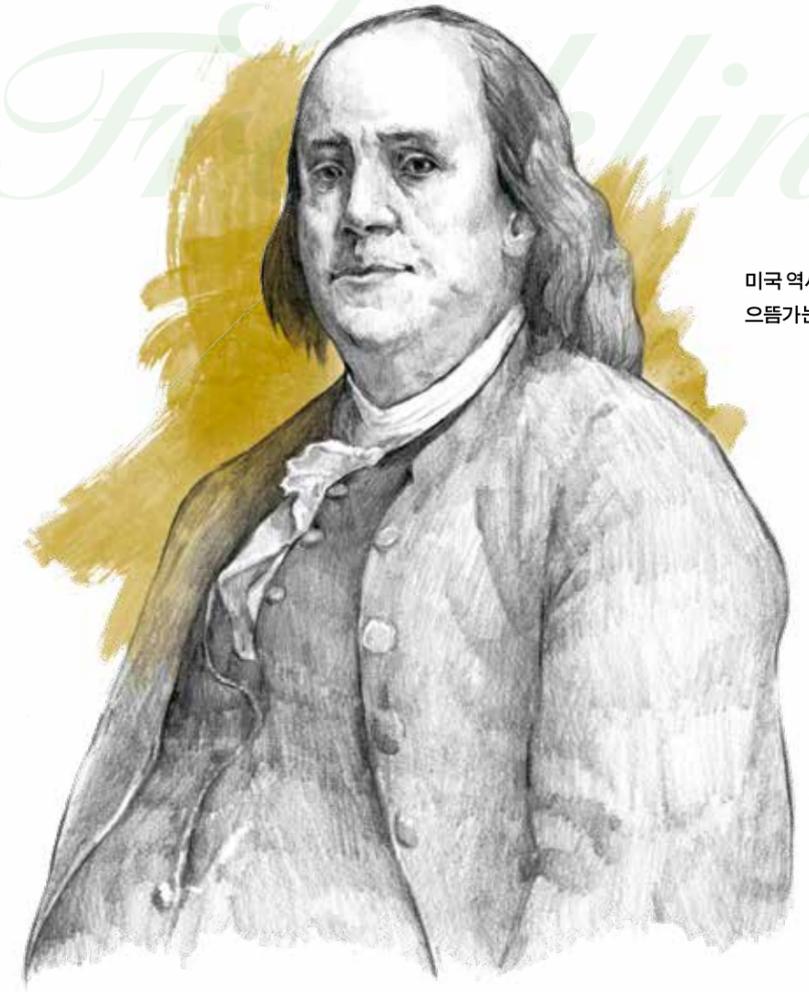


역경을 딛고
일어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군 마현(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진주목사 벼슬을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균관 재학 시 이미 정조에게 인정받고, 이후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신유사화로 18년간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이상적인 관료였다. 배다리와 거중기 설계에서 이미 재능을 펼쳤으며, 500권이 넘는 그의 저작에서 엿보이는 정치관은 기본적으로 '민본(民本)'이었다. 그의 민본 정신은 젊은 시절 '죽란시사(竹欄詩社)'라 부르던 시 짓기 모임을 시작으로 유배시절 제자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친 스승의 모습 등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잘 나타난다.

Benjamin Franklin



미국역사상
 으뜸가는 팔방미인

벤저민 프랭클린

프랑스의 정치가 튀르고는 벤저민 프랭클린을 가리켜 “하늘에서 번개를 훔쳤고, 군주에게서 권위를 빼앗은 인물”이라 평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대를 앞서가고 유행을 선도한 벤저민 프랭클린은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역사상 으뜸가는 팔방미인 또는 르네상스맨으로 꼽힌다.

미국인 중에서도 가장 미국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벤저민은 오늘날 역대 대통령들과 나란히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 얼굴을 새겼다. 미국 독립이라는 위대한 공헌이 있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1776), 프랑스와의 동맹 조약(1778), 영국과의 평화 조약(1782), 미국 헌법(1787)에 모두 서명한 유일무이한 인물이 바로 벤저민이다.



18세기 풍류를 꽃피운 시 모임 '죽란시사'

젊은 시절 정약용이 벗들과 함께 '죽란시사'라는 시 짓기 모임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정약용은 "5,000년의 세월 가운데 그와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가로세로 3만 리 땅에서 그와 같은 나라에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며 벗들과의 만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비슷한 연령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살며, 취향까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세상을 논하고자 한 것이 죽란시사였다. 당시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총 15명이었다. 이들은 격의 없이 만나 허물없이 즐긴 위아래 네 살밖에 차이가 안 난 동년배 그룹이었다.

죽란시사가 시 짓기 모임이었던 만큼, 만남 또한 시적이었다. 살구꽃이 피면 그 핑계로 모이고, 한여름 참외가 익으면 또 모이고, 국화가 피면 만나고, 첫눈이 오면 모이는 사이였다. 모임 때마다 술, 안주, 붓, 베틀을 가져와 술 마시며 시를 지었으니, 이 얼마나 낭만적인 모임인가.

국화의 그림자를 읊다

꽃을 좋아한 정약용은 그중에서도 유독 국화 사랑이 깊었다. 그는 국화가 여러 꽃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점이 네 가지 있다고 했다. 첫째는 늦게 피는 것이고, 둘째는 오래도록 시들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향기로운 것이고, 넷째는 고우면서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은 점이라 했다. 정약용은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 네 가지 장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그는 국화를 감상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정약용은 벗을 만났다.

"자네 오늘 저녁 나와 함께 국화를 감상하지 않겠나?"

"국화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어찌 한밤에 구경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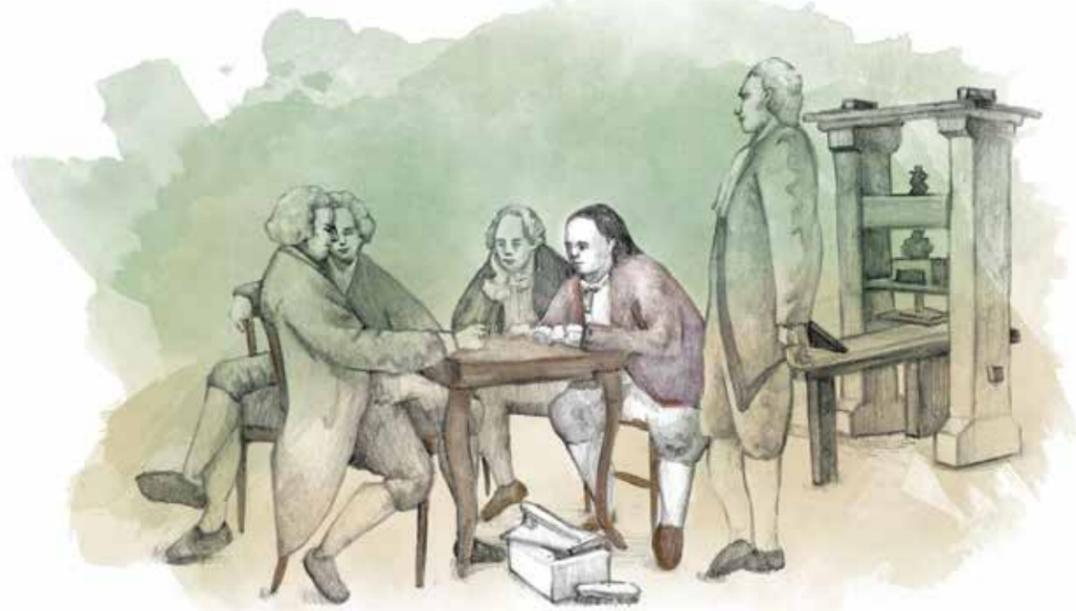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 보게."

강제로 벗을 집에 데려온 정약용은 저녁이 되자 어린 종을 시켜 촛불을 국화 한 송이에 바싹 갖다 대게 했다.

"기이하지 않은가?"

"자네 말이 이상하군. 내 눈에는 무엇이 색다른지 모르겠네."

정약용은 옷걸이, 책상 등 산만하고 들쭉날쭉한 물건을 치우고, 국화의 위치를 정돈해 벽에서 약간 떨어지게 한 다음, 비추기 적당한 곳에 촛불을 두어 밝히게 했다. 그랬더니 기이한 무늬, 이상한 형태가 방 안 벽에 가득해졌다. 꽃과 잎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켰다. 그제서야 벗은 손으로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두 사람은 흥분을 가라앉힌 뒤 국화꽃 정취에 취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시를 읊었다. 죽란시사를 주도하며 국화꽃 정취에 흠뻑 취했을 때가 정약용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국화의 계절이 다가오는 이때 정약용의 그림자놀이를 한번 즐겨 보면 어떨까 싶다.



사회의 틀에 매이지 않고 성공한 인쇄공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함께 18세기 미국인 중 가장 저명한 인물이다. 당대 미국 최고의 과학자이자 정치인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비즈니스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니, 한마디로 팔방미인이었다. 전기에 관한 실험 보고서와 이론은 당시 유럽 과학계에 널리 알려졌으며,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도 미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1706년 1월 17일 보스톤에서 태어난 프랭클린은 읽고 쓰는 것 외에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비록 체계적인 공부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점은 독창성을 개발하기 좋은 여건이기도 했다. 기성 학문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유롭고 실용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특성을 기를 수 있었던 셈이다.

벤저민은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10세 때부터 아버지와 형 밑에서 인쇄 일을 배웠고, 이후 1723년에 필라델피아로 옮겨 그곳의 한 인쇄소에서 일했다. 그러다 어느 후원자의 제안으로 영

국 런던으로 갔었던 벤저민은 2년 후 귀국, 인쇄소를 차려 큰 성공을 거두었다. 훗날 과학과 정치 분야의 명사가 된 뒤에도 "필라델피아의 인쇄업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유언장에 적었을 만큼 인쇄업자라는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인생을 전환시킨 지혜의 산실 '준토' 모임

전기 작가인 윌터 아이작슨은 벤저민 프랭클린을 가리켜 '네트워크의 달인'이라 칭했다. 벤저민은 주변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교 클럽을 만들어 공동 이익 단체 구성원이 되는 것을 즐겼다. 1727년 21세의 벤저민은 인쇄공, 구두수선공 등 12명의 절친한 친구를 모아 비밀결사라는 뜻을 가진 사교모임 '준토'를 결성했다. 이들은 비록 화려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와 수학을 좋아하는 젊은이로 열정적이었다. 준토 모임에서 과학, 철학, 경제, 정치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서로 주고받으며 나는 진지한 이야기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자유로운 구상과 아이디어가 도

서관과 공공병원, 대학 설립 등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들의 생각은 토론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다. 성공적인 준토 모임이 바탕이 되어 1743년 벤저민은 미국철학회를 결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식민지로 분열되어 있던 아메리카를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려는 구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가죽 앞치마 클럽(The Leather Apron Club)'이라는 다소 비하된 이름으로 불렸던 준토 모임의 회원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한 것이다. 30여년간 매주 금요일 저녁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준토 회원들.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안 제시라는 토론을 통해 갈등이나 분열 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낸 그들의 태도는 이 시대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을 많이 시사하고 있다.

글쓴이 정성희는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문학박사)이자 역사 연구가로, 활발한 저술 활동과 함께 '현재와 소통하는 살아 있는 역사'를 발굴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클래식, 이토록 조화로운 다양성의 공존 피아니스트 신수정

피아노와 함께한 70년 세월. 피아니스트를 꿈꾸기 전 피아노를 연주했고, 재능에 노력을 더해 대한민국 클래식 성장을 이끌었다. 그녀는 88개의 건반처럼 다양한 소리를 내는 연주자들의 든든한 멘토로서,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운영위원장으로 클래식 다양한 조화와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 피아니스트 신수정.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1세대인 그녀를 아주IB투자 인사총무팀 이진선 매니저가 만났다. 클래식에 대한 깊은 내공과 애정이 마주한, 조화로운 시간. 글. 김희선 사진. 장호 정소 협찬. 모차르트홀



무엇이든 경험이 중요합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패턴은 아니지만 후학 양성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제1회 이화경향콩쿠르' 입상, '제1회 동아콩쿠르' 1위, 서울대 음악대학 수석 입학과 졸업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 오셨습니까. 그런데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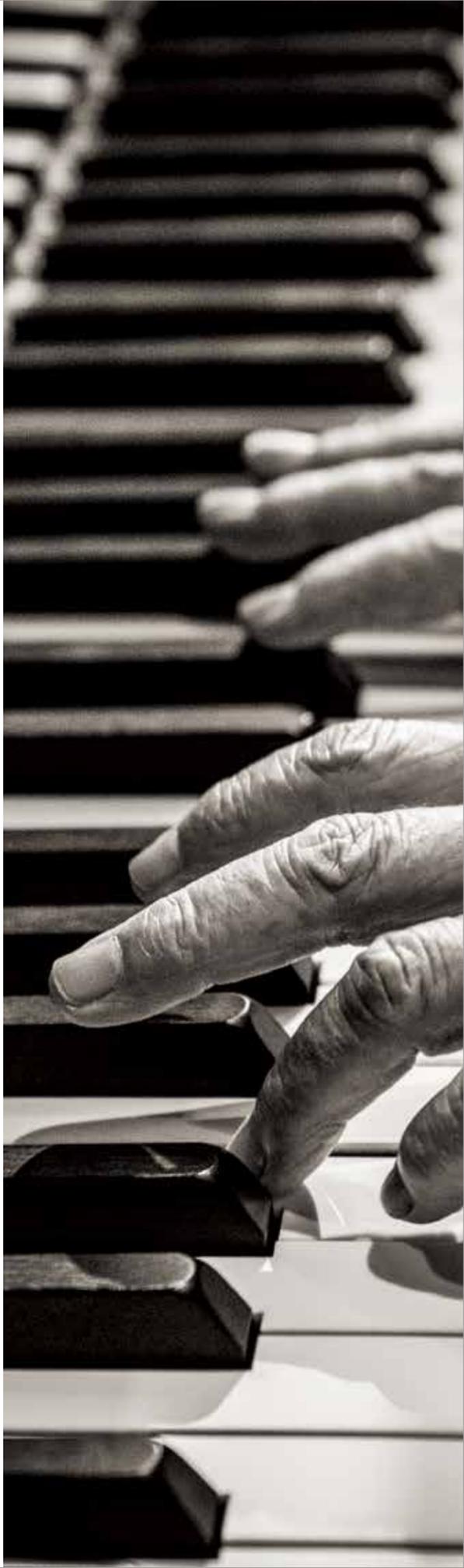
아버지께서 선생님이로 근무하신 충북 옥천 학교에 피아노가 있어서 여섯 살에 시작했어요. 그러다 청주에서 한국전쟁을 겪었는데, 서울에서 피란하신 선생님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며 대구에 계신 이애내(한국인 최초로 피아노로 독일 유학을 한 피아니스트·음악 교육자) 선생님께 저를 데려가셨죠. 임시 수도 부산에서 열린 이화경향콩쿠르는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신청해서 나갔다가 2등을 했어요. 제 나이 열 살 때였습니다. 학교에 일찍 들어가서 학년은 6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피아노가 서울예고와 서울대 음악대학을 거쳐 오스트리아 유학으로 이어졌고, 이후 서울대 음악대학에 몸을 담았습니다.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9년 전 정년 퇴임하셨는데요, 후학 양성은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던 시절에는 바이엘, 체르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수준에 맞춰 제작된 과학적이고 재미있는 교재가 많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많을뿐더러 유튜브처럼 인터넷상의 교육 자료도 무궁무진하죠. 다만 가르치는 것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젊은 선생님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레슨을 하거나 후학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제17회 소평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과 함께 세계적인 음악가로 발돋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한 인터뷰에서 신수정 선생님의 교육 방식을 설명하며 "내 인생에서 중요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떤 점을 특히 강조하세요?

예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술가 스스로가 감동을 느껴야 전달도 가능해요. 피아니스트는 곡에 깃든 슬픔이며 기쁨 등의 감정을 느끼며 연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같은 곡의 다른 (연주)해석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많은 사람의 연주를 들어 보고



어떤 음악이든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게 마련입니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생각부터 안 했으면 해요.
 일단 들어 보세요. 내가 들어서 좋은 음악을 시작으로
 조금씩 넓혀가면 되어요.

흥내도 내 보면서 감성을 끌어내면 진정한 나의 것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지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국내외 다양한 클래식 음악가가 한데 모여
 ‘클래식’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여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아시아 최
 대의 클래식 음악 축제예요. 클래식의 격조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대
 중과 함께 호흡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축제 기간 동안 세계 정상
 급 연주자들의 음악회와 강좌, 차세대 연주자들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강원도의 대자연을 주 무대로 열리기
 때문에 관객과 연주자 모두가 큰 감동을 느껴요. 2004년부터 시작
 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바이올리니스트 강효 교수가 6회까지 예술
 감독을 맡았어요. 이후 정명화·정경화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아 공
 동 예술감독을 하고 있죠.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무엇보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한 번 오신 분들은 꾸준히
 찾아오는 편이고요. 해마다 다른 테마로 열리는 데다가 초대된 음
 악가도 달라서 매번 새롭거든요. 이렇게 국제적인 음악제는 예술감
 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명화·정경화 예술감독이 그 역
 할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음악가로서 예술성은 물론이고 음악적
 인 아이디어가 뛰어난 분들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클래식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크겠지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초대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니
 까요. 이를 위해선 인식의 전환, 눈앞의 효과보다 멀리 보는 안목
 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한 감정은 매우 크고 귀중합니다.
 음악의 순수는 내면의 감정을 끌어내고, 결국 인간의 심성을 아

름답게 만들죠.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연주자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강원
 도 예술 단체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음악제 자체로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요. 이러한 가치를
 좀 더 많은 분이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클래식이라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클래식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음악이든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게 마련이에요. 요즘은 클래
 식 입문 도서도 많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클래식은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예요. 일단 들어 보세요. 내가 들어서 좋은
 음악을 시작으로 조금씩 넓혀가면 되어요. 모차르트나 슈베르트
 처럼 우리가 듣기에 친숙한 음악으로 시작하면 좋을 듯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세요?

예전부터 모차르트를 좋아했어요. 단순한 멜로디 속의 순수함,
 순수함 속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너머의 슬픔 등이 마음에 와 닿
 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린아이 또는 대가만이 연주를 잘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올해 연주회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11월에 폴란드에서 열리는 ‘파테레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
 사를 갑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어릴 적부터 단적으로 지내
 는 피아니스트 이경숙과 모차르트 듀오 연주회를, 12월에는 바리
 톤 박홍우 씨와 매년 함께하는 <겨울 나그네> 연주회를 모차르트
 홀에서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직원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후원해 주시는 아주그룹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더 멋진 음악 축제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명화·정경화 예술감독을 도와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여러분을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들에 따라 또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
 어릴 적 선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여러 번 책장을 펼친 책 『어린 왕자』가 신수정 선생의 애장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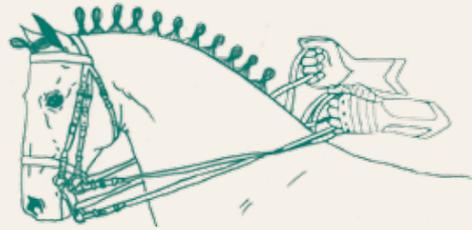
피아니스트 1세대인 신수정 선생과 함께 클래식과 피아노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아주
 IB투자 이진선 매니저. 신수정 선생의 섬 없는 열정은 다른 이의 삶에 또 다른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피아니스트 신수정

- 서울대 음대 수석 입학 및 졸업
- 오스트리아 빈 국립 아카데미 우등 졸업
- 독일 정부 일등심자공로훈장 서훈
- 최연소(26세)로 서울대 음대 교수 임용
- 강원대 음대 교수 및 학장 역임
- 서울대 음대 최초 여성 학장 취임
- 현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 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현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위원장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아주인에게 드립
 니다. 인터뷰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아주 좋은 날』 편집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팀 ajupr@aju.co.kr





MANAGER

매니저 : 말의 고삐를 쥔 사람

원래 매니저는 '말을 타다'를 뜻하는 단어였다. 옛날 유럽 귀족 계급이던 기사가 고삐를 손에 쥐면 자기보다 몸집이 큰 말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손'을 뜻하는 'Mano'에서 '말을 다룬다'는 'Manage'가 나왔다. 스스로를 꼭 붙들어 타인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Manner', 그리고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책인 'Manual'과 같은 어원이다. 그러니까 'Manager'는 원래 장사꾼이 아니라 기사가 말을 다스리는 것처럼 '조직을 다스리는 귀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이 단어가 비즈니스맨을 뜻하게 된 배경은, 영국의 유명한 풍자소설인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너선 스위프트의 운 좋은 사촌의 인생 속에 있다. 당시의 영국인들은 스위프트보다는 스위프트의 사촌인 드라이든이라는 시인을 영국 최고의 문호로 꼽았다. 당시 귀족 가문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국무총리실에 취직한 드라이든은 세 권의 고전(『일리아드』, 『오디세이』, 『아이네이스』)을 영어로 번역해 많은 영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받아 챙겼다. 드라이든은 이 세 권의 고전들을 번역하다가 '철저히 운영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그냥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쓸까 하다가 고대 영웅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장사꾼과 관련된 천한 단어를 쓰면 책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말의 고삐를 쥔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Maneggiare'를 발견했다고 한다. 귀족이 말을 타는 것은 자연스럽고 멋진 일이니, 영웅이 하는 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중에 대기업 사장들이 '고삐를 꽂 쥐고 있는 기사처럼 조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며 'Management'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쓰기 시작했다.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은 언어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인문서다. 2016년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언어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췌해 소개한다.

Now + Moment

라이프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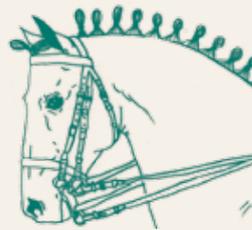
기록적인 더위 후 찾아온 선선하고
조금은 쌀쌀하기까지 한 날씨가 반가운 요즘이지만,
날이 갈수록 가을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탓에
무르익어 가는 계절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천고마비의 계절인 만큼 미식 여행을 떠나 봐도 좋겠고,
호젓한 곳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느껴도,
거대한 대자연이 보여 주는 경이로운 단풍을 만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을 해 보는 일,
낭만적인 정취에 흠뻑 빠져 가을의 감성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메이플 시즌 절정기에 캐나다는 로키산맥, 오토라 못지않은 웅장한 감동을 선사한다.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길 사이를 걸으며 느껴 보는 캐나다의 정취. 글: 사진 제공, 유별남





MANI

매니저 : 말의

원래 매니저는 '말을 타다'를 뜻하는 단어를 손에 쥐면 자기보다 몸집이 큰 말도 자 '손'을 뜻하는 'Mano'에서 '말을 다룬다'는 인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 'Manual'과 같은 어원이다.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는 것처럼 '조직을 다스리는 귀족이다. 이 단어가 비즈니스맨을 뜻하게 된 배경은 19세기 말 미국의 저자 조너선 스위프트의 운 좋은 시위프트보다는 스위프트의 사촌인 드라이더가 당시 귀족 가문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국왕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이네이스』)을 도록 하겠다며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받아 역하다가 '철저히 운영하고 관리한다'라는 황했다. 그냥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쓸까? 말을 운영하는 데 장사꾼과 관련된 천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Maneggiare'를 발견했다고 한다. 귀족이 말을 다루는 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 기사처럼 조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쓰기 시작했다.

『이야기 인문학』(저자: 조승연, 출판사: 김영사)은 언어의 역사다. 2016년 『아주 좋은 날』에서는 『이야기 인문학』의

신비롭고 낭만적인 가을의 절정 캐나다 '메이플로드'를 가다

메이플 시즌 절정기에 캐나다는 로키산맥, 오로라 못지않은 웅장한 감동을 선사한다.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길 사이를 걸으며 느껴 보는 캐나다의 정취. 글: 사진 제공, 유별남





1

- 1 중세 시대의 고풍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계탑.
2 바다와 별빛 가득한 밤하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호프웰 바위.
3 도심속 아름답게 펼쳐진 단풍길을 따라 즐기는 멋스런 드라이브.

오색찬란한 가을을 품은 메이플로드

자연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색으로 보여 준다. 새벽을 알리는 붉은 태양으로부터 차디찬 얼음색의 달,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하늘색. 그중에서도 때로는 열광하며 때로는 아쉬워하며 때로는 거부하고 싶지만 우리를 설

레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의 색이 있으니 바로 가을의 단풍 색이다. 가을이 되면 팔도강산이 아름답게 물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당당하게 가을 단풍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캐나다다.

국기만 봐도 그 자신감이 넘쳐난다. 메이플 리프라는 이름의 캐나다 국기는 빨강 바탕 안 흰색 정사각형에 붉은 단풍잎을 그려 넣었다. 중앙의 단풍잎은 '처음에는 여리고 쉽게 시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가지들 뺀어 가고 폭풍우를 이겨 내며 결국엔 바람에 맞서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토가 넓은 캐나다는 전체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단풍나무로 이루어진 숲이며, 목재가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만큼 그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단풍잎을 그려 넣었다는 의견도 있다. 국기에조차 단풍을 그려 넣을 정도이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캐나다는 논할 때 단풍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캐나다는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 나라지만, 특히 동부 지역은 가을에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나이아가라에서 퀘벡으로 이어지는 800km의 단풍길, '메이플로드(Mapleroad)'를 따라 가다 보면 오색찬란한 캐나다 가을의 시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에서 무성하게 뻗은 가지와 넓은 잎사귀들이 한데 모여 붉고 노란 빛을 뿜어내는 풍경은 가히 환상과도 같다. 인간의 손이 타지 않은 자연만의 힘으로 벗어난 모습은 한 번 보면 쉬이 잊기 어려울 만큼 진한 여운을 남긴다.

캐나다에서는 메이플로드를 역사 유산의 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16세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캐나다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개척해 연결한 길이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이 길을 느긋하게 걸으며 캐나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바다에서 즐기는 색다른 캐나다 가을의 낭만

눈 호강을 즐길 수 있는 메이플로드를 구경하기 위해 9~10월 중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꽤 많다. 메이플로드를 한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부터 토론토, 킹스턴,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까지 주를 넘나들며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캐나다 메이플로드를 찾는 관광객은 렌터카로 가 보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풍경을 만끽하기도 한다.

하지만 메이플로드를 만나기 전,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 멋진 풍경의 호프웰 바위(Hopewell Rocks)에 들러 보기로 했다. 바다에서 가을의 풍경을 논하다니, 무슨 일일까 하겠지만 어디에나 관문은 있는 법. 이곳은 가을 여행의 필수 코

스가 된 까닭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 최대 조수 간만의 차를 보이는 펀디 만(Bay of Fundy)의 호프웰 바위는 빙하기 때 빙하가 물러나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의 최고 높

은 바위는 길이가 30m에 달한다고 한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서둘러 타거나 걸어서 가다 보면 확 트인 바다와 집채만 한 기암괴석이 눈앞에 펼쳐진다. 간조가 되면 해저가 노출되어 기암괴석 호프웰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연이 벗어낸 조각품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장관을 이룬다. 썰물에는 구멍이 뚫린 바위 사이를 걸으며 자연이 허락한 시간 동안 직접 바위를 만져 보기도 하고, 밀물 때에는 카누를 타고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색다르게 풍광을 즐긴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밤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바위의 모습이 유럽 깊은 산속의 고성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단풍 진 숲이 주는 낭만과는 또 다른 캐나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매력에 흠뻑 빠져 본 신비한 시간이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화려하면서도 몽환적인 풍경

캐나다의 가을은 다양한 축제로 그 시작을 요란스레 알린다. 그중 하나가 유명한 와인 축제다. 매년 포도 수확 철이 되면 나이아가라 인근의 세인트 캐서린스(St. Catharines)에서 그레이프 와인 축제가 열린다. 질 좋은 와인 생

산지로도 유명한 나이아가라 인근의 와이너리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소방관들이 자신의 장화를 들고 모금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이었다. 일상 속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타인의 목숨을 지키는 소방관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다.

요란스러운 축제에서 가볍게 와인 시음을 하고 발걸음을 조금 옮기면 피해 가고 싶어도 피해 갈 수 없는 거대한 이 땅의 주인을 만나게 된다.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원주민어로 '천둥소리를 내는 물기둥'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은 나이아가라 폭포는 50m가 넘는 높이에 너비 약 790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폭포가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는 트럼펫 7만 6,000개가 동시에 불 때 나는 소리와 맞먹는다고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들어서면 곱게 화장을 한 여인으로 변신하는 나이아가라의 새로운 모습도 눈여겨볼 만하다.

많은 호수와 숲으로 이루어진 있는 캐나다 동부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새벽길을 달리는 것이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선 길에서 만나는 새벽 호수의 물안개는 아득히 먼 동화 속 요정의 숲으로 가는 입구마냥 몽환적이다. 그 물안개를 헤치며 단풍 요정들이 뛰쳐나올 것만 같다. 신비로운 안개가 매력적인 락 메간틱(Lac Megantic) 호수로 가는 길은 굽이굽이 오르락내리락 고갯길이지 멀리 새벽 물안개까지 이어져 있다.



4. 곤돌라를 타고 몽트랑블랑 정상으로 올라가면 캐나다의 가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메이플로드의 숨겨진 보석, 앨곤퀸 주립공원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헨즈빌이라는 도시에서 30여 분을 더 들어가면 호수와 숲의 낙원이라 불리는 온타리오 주에 도착한다. 온타리오 주에는 메이플로드의 진정한 주인

공이라 할 수 있는 앨곤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이 자리하고 있다. 헨즈빌에서 60번 도로를 타고 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단풍의 절정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진 호수와 단풍으로 꽉 찬 오솔길은 그야말로 만산홍엽(滿山紅葉).

인디언들이 사냥을 하며 살았던 이 숲은 1893년 주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숲의 대부분이 보호구역이다. 주변에서 야영과 하이킹을 즐길 수 있지만 캠핑이나 낚시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알곤퀸 주립공원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1922년에 화재 감시용으로 만든 돌셋전망대(Dorset Lookout Tower)에 오른다.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운영하는 돌셋전망대에서는 호수의 정경과 단풍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색이 모여 이룬 붉은 풍경은 자연의 캔버스 위에 그려진 거대한 점묘화(풍경화)같다. 가을이면 이 풍경을 즐기러 오는 사람으로 북적인다. 카누를 타고 호수 주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작은 텐트를 치고 맞이하는 저녁 노을은 그 누구의 버킷리스트에서도 빠질 수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다.

해 질 무렵 어둠이 빨강을 지을 즈음이면 단풍은 자신의 화려함이 사라짐이 아쉬워 잠시 하늘에게 그 붉은빛을 맡겨 둔다. 그렇게 하늘은 잠시 단풍의 붉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가 아쉬움을 남겨 둔 채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우리 걸을 잠시 스쳐 가는 단풍만큼 아쉬운 것이 또 있을까마는 그렇기에 지금 볼 수 있는 단풍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 게다. 캐나다 대자연이 만들어 낸 웅장한 단풍의 향연인 메이플로드는 가을의 절정을 품에 안기에 더할 나위 없는 가을 여행지다.



캐나다 메이플로드를 즐기는 여행 TIP

단풍 절정 시기를 알려주는 '단풍 리포트' —— 온타리오 공원부에서는 단풍 리포트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준다. 0~100%로 표시해 주므로 색채, 진행률 등을 수치로 알 수 있다. 25%부터 본격적으로 단풍을 감상할 수 있으며, 100% 때는 단풍이 거의 끝나는 시기다(www.ontarioparks.com/fallcolour).

단풍 한정! 수생마리&아가와 캐년열차 —— 1년 중 단 3주만 운행하는 단풍관광 열차. 4시간여를 달리는 동안 창밖의 단풍을 구경하고, 목격지인 아가와캐년에 도착해 2시간 동안 호수와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북미의 알프스, 휴양 천국 몽트랑블랑 —— 동화 속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곳으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곤돌라가 유명하다. 아기자기한 호텔과 콘도, 미니 골프장, 스키 코스 등을 꾸며 놓았으며, 가을에는 무료 야외 콘서트, 퍼레이드 등의 공연도 연다.

자연을 품은 맛있는 캐나다

비옥한 땅, 캐나다를 맛보다

푸드스타일링: 스피니치701 사진: 장호



Canada

캐나다는 해산물 수출국으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특히 대서양 연안 노바스코샤 주에서 잡히는 랍스터가 유명하다. 캐나다 랍스터는 지방이 적고 포화지방 또한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탄수화물도 적어 맛이 좋다. 푸틴프라이스는 1950년대 후반 퀘벡 주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캐나다 길거리나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등 어디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캐나다 대표 요리다.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다. 바삭바삭한 감자튀김에 치즈를 얹고 그레이비소스를 뿌리면 끝. 여기에 입맛대로 베이컨, 고기, 양파 등 다양한 토핑을 뿌려 먹으면 된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퀘벡 주는 그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하며 당시 건축 양식도 보존되어 있는데, 감자튀김에 그레이비소스를 얹은 푸틴프라이스도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Food & Culture



캐나다 퀘벡 맥달란 섬에서 어부들이 나무 상자에 랍스터를 분류하고 있다. 1952년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가 다큐멘터리 <바람이 휩쓸 섬>의 한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맥달란 섬에서 소박하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삶을 기록했다.

×



캐나다는 세계 메이플 시럽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팬케이크에는 물론 고기 소스로도 메이플 시럽을 사용한다. 메이플 시럽은 설탕, 벌꿀과 비교해 보면 칼로리가 가장 낮다. 또 칼륨을 함유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

×



퀘벡주를 비롯해 오타와 등 캐나다 각지에서 푸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치킨 푸틴, 베이컨 푸틴, 포크립 푸틴, 팟타이 푸틴 푸틴 등 다양한 종류의 푸틴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tip.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린 단면이 위로 향하게 놓고 찐다.

Lobster potato cheese ro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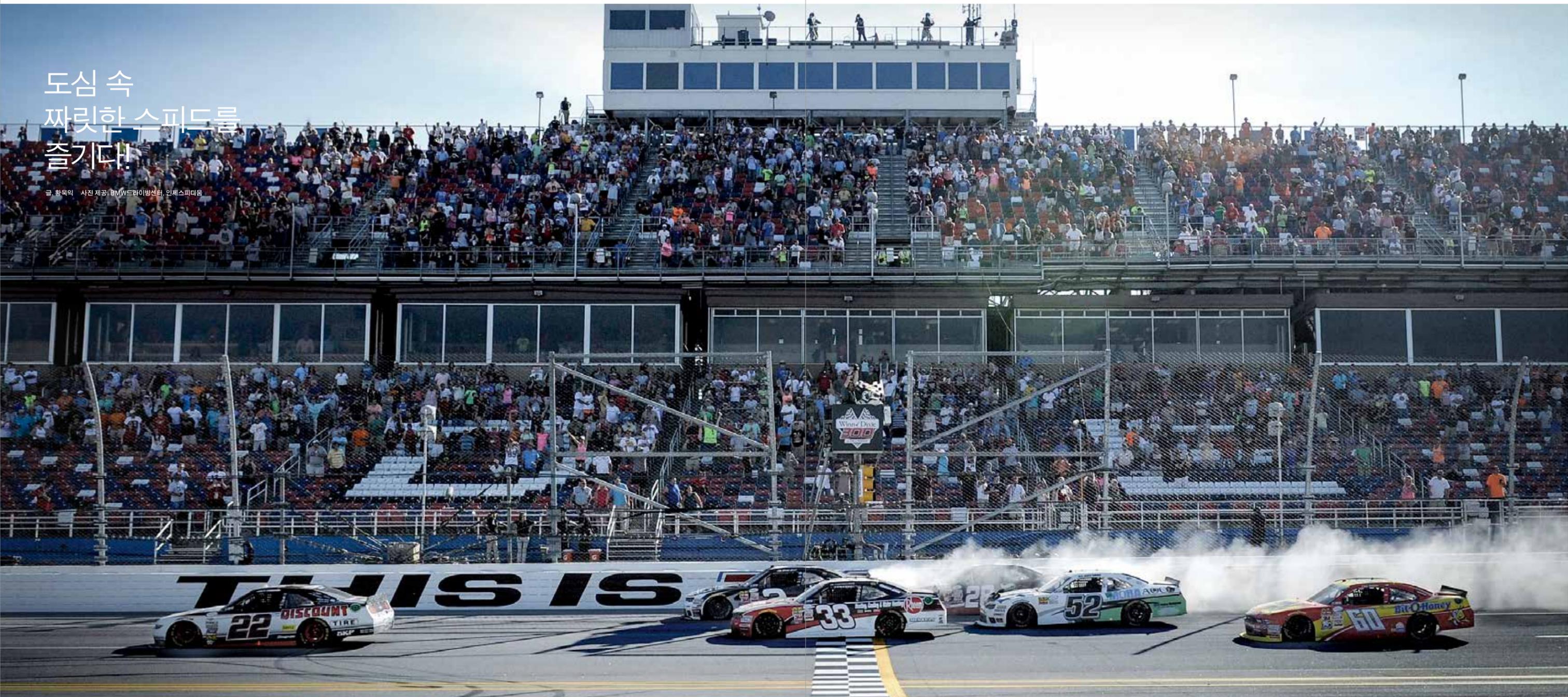
랍스터 포테이토 치즈 로스트

1. 랍스터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1/2등분한다. 2. 랍스터에 레몬즙을 뿌린 후 찜기에 넣고 15분간 찜낸다. 3. 삶아서 으갠 감자에 다진 베이컨, 버터, 파슬리 가루, 다진 마늘, 후추, 소금을 넣고 섞는다. 4. 찜낸 랍스터 단면에 재료를 섞은 감자를 바른 후 190°C로 예열한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 낸다.

랍스터 1마리, 감자 1/2개, 베이컨 1장, 버터 1큰술(15g), 파슬리 가루 1작은술(5g), 다진 마늘 1쪽, 치즈 가루 2큰술(30g), 레몬즙 약간, 후추, 소금 약간씩

도심 속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다!

글, 황욱익 사진 제공, BMW드라이빙센터, 인제스피디움



12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자동차 스피드의 역사

인간이 자동차로 스피드를 즐기게 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첫 스피드 경주 대회는 디젤 엔진이 등장한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최초로 파리-루앙 간 126km 구간을 달리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개최된 것. 이후 파리-보르도 간을 달리는 경주에서부터 1906년 첫 그랑프리 레이스, 1907년 파리와 베이징을 잇는 최초 랠리 자동차 경주 대회까지 자동차 기술의 본격적인 발전과 함께 스피드를 즐기는 세계적인 경주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현재 레이스의 원형으로 꼽히는 대회는 1960년에 열린 제1회 프랑스 그랑프리다. 그 전과 달리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차의 크기나 성능을 규제해 포물러(규격)에 맞춰 기회를 균등히 한 상태로 레이스를 진행했다. 이때 이후로 자동차의 성능과 규칙이 변함에 따라 레이스의 모습도 점차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3월에 열린 자동차 동호인들의 제한 속도 경기를 첫 레이스의 시작점으로 본다. 정식 대회는 같은 해 5월 영종도에서 열린 '제1회 그랑프리 코리아 레이스'다. 최근 국내에서는 짐카나(미리 세워둔 장애물 사이를 빠져나가는 초보자용 경주)와 도로경주(30도, 60도, 90도, 120도 등의 커브 길이 있는 원형 도로를 달리는 경주)가 개최되고 있다.

서킷, 안전하게 스피드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

최근 신문이나 뉴스 사회 면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제한 속도가 있고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일반 도로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과거보다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스피드를 즐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안전이 확보된 공인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제 공인 규격 서킷이 2곳이나 있는 우리나라는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자신의 차를 가지고 속도 제한 없이 스피드

를 즐길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한 코리아인터네셔널서킷(KIC)과 강원도 인제의 인제스피디움 총 2개의 국제 공인 규격 서킷과 강원도 태백의 태백레이싱파크(휴면 서킷),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까지 모두 총 4개의 서킷이 있다. 이 중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영암의 서킷과 인제스피디움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 스피드웨이는 자동차 회사의 이벤트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으며,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하는 태백 레이싱파크 역시 마찬가지다.

영암의 서킷과 인제스피디움은 국제 자동차 경주 개최도 가능한 곳으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F1 경기가 열렸던 영암 서킷은 총길이 약 3.045km(상설 서킷), 아시아 르망을 치른 인제스피디움은 3.908km다. 고속 평면 서킷인 영암에 비해 인제스피디움은 고저 차가 크고 블라인드 코너가 많은 편이다.

서킷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영암과 인제 서킷 모두 별도의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주행 이벤트도 다양하다. 또한 자동차 동호회별로 거의 매주 진행되는 트랙 데이도 일반인이 서킷을 체험할 수 있는 창구 중 하나다.

우선 서킷을 주행하려면 서킷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간단한 안전 교육(약 2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서킷 라이선스는 서킷을 주행할 수 있다는 자격과 같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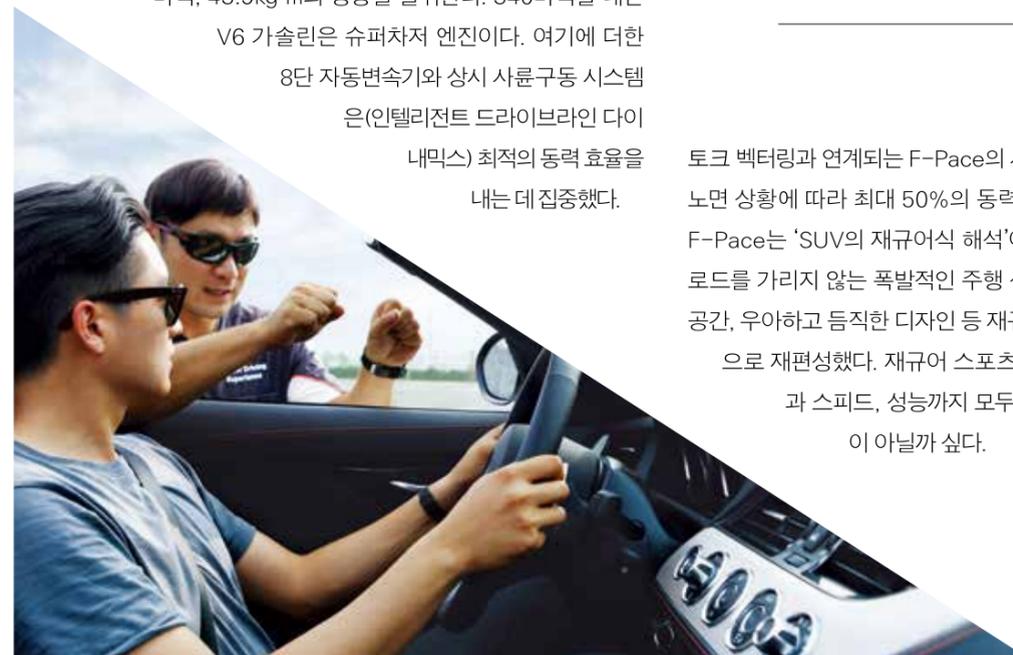
코스와 가장 낮게 붙어 달리는 스릴 만점 카트자동차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카트 라이딩으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자동차 전용 서킷이 서울과 멀고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카트는 서울 시내에 전용 트랙이 있어 언제든(월요일은 휴무) 즐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잠실 자동차 극장 내 있는 잠실 카트장으로 약 500m의 카트 트랙이 있다. 스피드와 드라이빙 테크닉을 배우거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레저 카트를 비롯해 2인승 카트, 스포츠 카트, 레이싱 카트 등 이용자의 숙련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잠실 카트장 외에 파주에 있는 파주 스피드파크도 스피드 마니아에게는 인기 있는 장소다. 1.4km의 복합 코스로 운영하는 파주 스피드파크는 긴 직선과 다양한 코너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F-Pace

재규어의 F-Pace 첫인상은 강렬하고 날렵하다. 댁 벌어진 프론트 뷰에서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과 날이 서 있는 루프 라인은 등직한 느낌을 준다.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무리한 인테리어도 우아함과 기품이 가득하다. 창사 이래 80년 만에 선보이는 SUV인 만큼 요소요소에 공들인 흔적과 재규어가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재규어가 F-Pace를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효율이다. 재규어의 세 번째 알루미늄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한 F-Pace는 새시의 80%에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해 무게를 줄였으며, 재규어가 추구하는 스포츠 감성을 불어넣었다. 최근에는 스포츠카 감각의 SUV가 많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F-Pace는 다른 SUV와 달리 본래의 DNA 향취가 강하다.

엔진은 두 가지 디젤과 한 가지 가솔린으로 준비했다. V6 터보디젤 엔진을 얹은 30d는 최고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71.4kg·m의 성능을 발휘하고, 20d의 직렬 4기통 터보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80마력, 43.9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340마력을 내는 V6 가솔린은 슈퍼차저 엔진이다. 여기에 더한 8단 자동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은(인텔리전트 드라이브라인 다이내믹스) 최적의 동력 효율을 내는데 집중했다.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CIRCUIT!



사진. 미국 유명 서킷 디자이너 앨런 윌슨(Alan Wilson)이 설계한 인제스피디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국내 최초 국제 자동차 경기장으로 서킷 설계의 1인자인 세계적 건축가 헤르만 틸케가 설계를 맡았다. 홈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신청 후 현장에서 이론, 실기 교육을 받으면 서킷을 달릴 수 있다. 미리 신청하면 방문 견학도 가능하다. 카트 경기장: 레저 및 주니어 1인승(10분당 1만 원, 주말 및 공휴일 1만 2,000원) 오프로드 경기장: ATV 일반(30분당 2만 원, 주말 및 공휴일 30분당 3만 원)

인제스피디움 자동차로 서울에서 2시간,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으며, 콘도미니엄과 호텔 등의 시설이 함께 있어 즐기기에 편하다. 서킷택시(3만 원), 서킷사파리(1만 원) 등의 프로그램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도, 편하게 풍경을 즐기며 서킷을 주행할 수 있다.

스포츠 주행 이용 방법: 서킷 라이선스 취득(이론 교육 50분, 실전 주행 30분) ▶ 스포츠 주행 준비(복장, 이용 규정 숙지, 사양서 작성) ▶ 스포츠 주행 결제(20분 1세션 5만 원) ▶ 스포츠 주행 즐기

스포츠 SUV, JAGUAR F-Pace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슈퍼차저 엔진에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라인 다이내믹스 시스템을 최적의 동력 효율을 냈다. 온-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폭발적인 주행 성능을 지닌 F-Pace를 주목해 보자.



토크 벡터링과 연계되는 F-Pace의 사륜구동은 평소 뒷바퀴를 굴리다 노면 상황에 따라 최대 50%의 동력을 분배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F-Pace는 'SUV의 재규어식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폭발적인 주행 성능과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우아하고 등직한 디자인 등 재규어의 전통과 기술을 SUV의 모습으로 재편성했다. 재규어 스포츠카의 DNA를 지닌 F-Pace. 안전과 스피드, 성능까지 모두 놓칠 수 없는 이에게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싶다.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

김남윤 원장의 여가식미 餘暇食美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 ‘한국 바이올린계의 살아 있는 역사’라고 불리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 낸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정년 퇴임 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그녀의 삶 속에는 오롯이 ‘바이올린’과 ‘교육’이라는 두 단어가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한 그녀의 여가식미(餘暇食美). 글. 한울 사진. 이원재

김남윤 원장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인이자 교육자로 손꼽힌다. 1974년 스위스 티보바가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린 그녀는 이후 국내외 정상급 교향악단과 협연하고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의 심사위원 및 국제 뮤직 페스티벌의 초빙교수로 활약하는 등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지평을 넓혀 왔다.

경희대를 거쳐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주자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던 그녀는 1993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신설되었을 때 안정된 교수직을 박차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친다면 세계적인 예술가로 키워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중 김남윤 원장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연주자가 드물다고 할 정도로 그녀는 훌륭한 연주자이자 교육자로서 한길을 걸어 왔다. 김남윤 원장 스스로도 “내 인생에는 단 하루도 개인적인 휴가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다.

2015년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를 정년 퇴임하고 현재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학생들이 연주할 때 덩달아 긴장하고, 학생들이 콩쿠르에서 입상했을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기쁘다는 그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육성해 내고 싶은 스승의 진심 어린 마음은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는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공부하던 언니를 따라 음악회에 갔다가 우연히 본 바이올린의 매력에 빠져 그때부터 한평생 바이올린과 동고동락했고, 이제 그 세월은 50년을 훌쩍 넘겼다.

“연습하다가 좀 쉬면서 바이올린을 보면 청승맞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예쁘다고 하는 악기가 왜 제겐 청승맞아 보이는지... 아주 가끔은 ‘내가 이걸 왜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한평생 바이올린 덕분에 행복했고 또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이올린과의 운명 같은 만남,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오른 유학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던 삶.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단하고 고독했다. “지금도 그래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학생들에게 내주고 나면 허전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윤 원장은 자신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박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니까 말이다.

餘

취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여자가 바느질은 못 해도 요리는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실 때에는 저를 꼭 불러서 옆에서 보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일까요. 저는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어딘가에서 먹어 본 음식을 레시피 없이 제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혼자서 구절판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족을 위한 식사는 제가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 때보다 더 기쁠 때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 줄 때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장소 '레슨실'
 사실 저는 근처에 있는 창경궁에도 한 번 안 가봤을 정도로 어딜 가거나 하지 않아요. 이런 저에게 가장 편하고 친숙한 장소가 레슨실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곳이니깐 그 어느 곳보다 특별한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슨실에 있을 때가 마음이 가장 편해요. 여기서 아이들과 열정적으로 수업하고 재미있게 수다를 떨기도 하고 밥도 함께 먹습니다. 꼬마들은 제가 가끔 장난쳐서 울리기도 해요. 저의 일상이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暇食

·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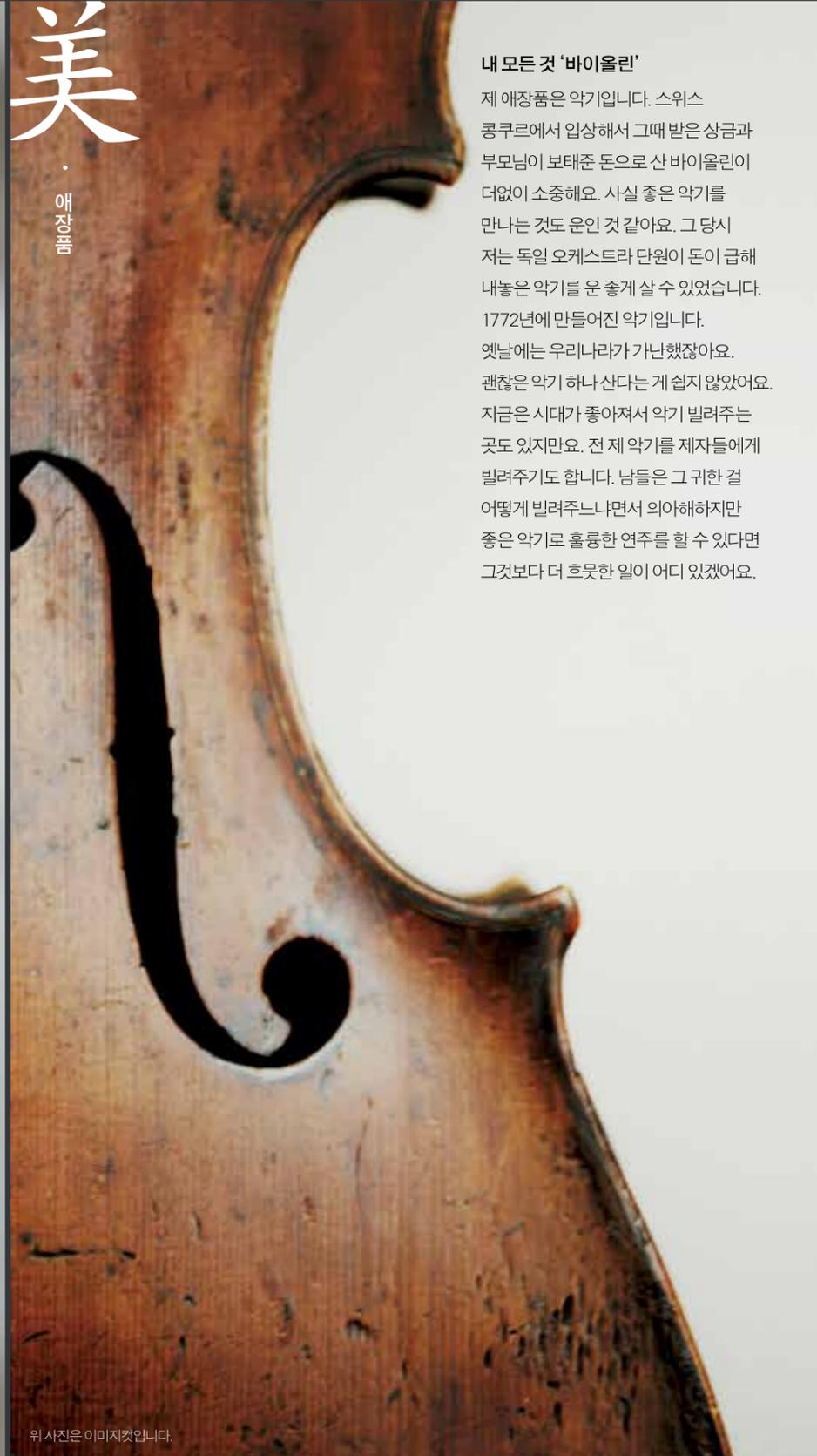
· 이미지



맛과 향기로 나를 깨우는 '커피'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커피에 목말라서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즐겨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닦고 세수하고 제일 먼저 마시는 게 커피죠. 오전에 서너 잔 정도는 마셔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네스프레소 아르페지오예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땀가끔 믹스 커피를 마시기도 해요.
 젊었을 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오후 5시 정도 되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에 맛있는 김치 생각하면 침이 넘어갔어요.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나이 드니까 맛있는 것도 없다"라고 그러시더군요. 그 당시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어머니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요. 저에게 누군가 무얼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 많이 먹으라고, 맛있을 때 많이 먹으라고 종종 말해요.

美

· 애장품



내 모든 것 '바이올린'
 제 애장품은 악기입니다. 스위스 콩쿠르에서 입상해서 그때 받은 상금과 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산 바이올린이 더없이 소중한요. 사실 좋은 악기를 만나는 것도 운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이 돈이 급해 내놓은 악기를 운 좋게 살 수 있었습니다. 1772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관찰은 악기 하나 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악기 빌려주는 곳도 있지만요. 전 제 악기를 제자들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남들은 그 귀한 걸 어떻게 빌려주느냐면서 의아해하지만 좋은 악기로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흐뭇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위 사진은 이미지컷입니다.



E.T. × Hersheys

외계인과 순수한 우정을 나누게 한 결정적 매개체 허쉬 초콜릿

영화 <E.T.>는 '순수'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떠오르는 영화다. 외계인이라는 존재뿐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타고 보름달을 지나는 장면 등 어느 것 하나 순수함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외계인과 주인공이 우정을 나누게 된 계기 자체가 무척이나 순수하다. 이 순수의 매개체는 바로 '허쉬 초콜릿'. 그래서인지 영화 <E.T.>를 보는 내내 달달한 초콜릿 향이 느껴진다.

글. 서애리 사진 제공.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세스 피시즈는 허쉬 제품 중 유일하게 초콜릿을 함유하지 않았다.

리세스 피시즈의 색깔별 비율은 — 오렌지색 50%, 노란색 25%, 초콜릿색 25%다. 웬지 오렌지색이 손에 더 많이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이 아닌 것!

리세스 홈페이지에서는 리세스 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리세스를 더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www.hersheys.com/reeses



ET와 엘리엇이 나누는 우정의 연결 고리

영화 <E.T.>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외계인 이티와 주인공 엘리엇이 처음 교감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식물 탐사 중 낙오되어 홀로 지구에 남겨진 배불뚝이 외계인 이티는 지구가 낯설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그에게 다가온 이가 바로 소년 엘리엇이다. 엘리엇은 자기네 집 창고에 숨어든 외계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허쉬 초콜릿을 하나씩 떨어뜨려 방으로 유인한다. 소년에게 초콜릿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자 자신을 가장 안심시켜 주는 존재였을 것. 이 때문에 친해지고자 하는 대상에게 거침없이 허쉬 초콜릿을 내밀었을 게다. 그렇게 소년 엘리엇은 숲에 초콜릿을 하나씩 떨어뜨린다거나 담요에 하나씩 올려 놓음으로써 외계인 이티에게 호감을 나타내고 이는 이들이 교감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PPT의 성공적 사례가 된 허쉬 초콜릿

사실 이 교감의 결정적 계기가 된 초콜릿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 엘리엇이 이티를 찾기 위해 숲에 뿌리는 초콜릿으로 처음부터 허쉬 초콜릿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사용하고 싶었던 초콜릿은 M&M's 것이었지만 거절당하는 바람에 허쉬 초콜릿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허쉬는 얼떨결에 영화 <E.T.>에 PPL을 하게 되었지만, 영화가 소위 대박 나면서 개봉 1개월 만에 65% 매출 상승 효과를 봤다. 또한 할리우드 최초의 성공적인 PPL 사례가 되면서 할리우드에 본격적인 PPL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허쉬가 영화 <E.T.>에 초콜릿 홍보를 위해 쓴 돈은 1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로 인해 허쉬는 미국 제1의 초콜릿 회사가 될 수 있었다.

허쉬,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나누다

허쉬를 창립한 밀튼 허쉬(Milton Hershey)는 이러한 성공을 사회에 그대로 환원하고자 했다. 이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에 그의 이름을 딴 허쉬타운을 조성했다.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그들이 살 집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와 병원, 은행, 공원, 문화 공간,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해 하나의 마을을 만든 것이다. 영화 <E.T.>에서 외계인 이티와 주인공 엘리엇이 허쉬 초콜릿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현실에서 밀튼 허쉬는 허쉬타운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하고자 했다.

그래서일까. 허쉬는 11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허쉬 바(HERSHEY'S BAR), 키세스(KISSES), 너겟(NUGGETS), 리세스(REESE'S)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통해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허쉬의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과 사랑은 영화 <E.T.>의 주인공 엘리엇의 따스한 마음과 닮았다. 어쩌면 허쉬 초콜릿이었기에, 외계인과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고, 그 우정도 더욱 순수하게 지킬 수 있었지 모른다. 영화 <E.T.>에서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달달하게 풍겨온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단풍 드는 나뭇잎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HINT! — 조류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것. 공기층을 만들어 체온을 보호하고 몸의 비중을 가볍게 한다.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고 업서를 통해 정답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천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Aju + Style

아주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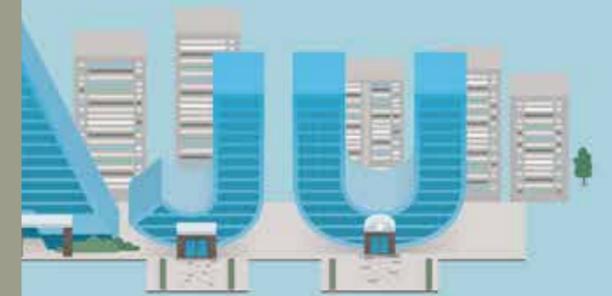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정보에 대해 30%의 사람만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70% 사람은 일부만 받아들인다.
 기업의 문제 중 70%는 의사소통의 장애로 야기된다.
 - 뤼거롱의 『경영의 지혜』 中

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참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소통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에서 더 나아가 조직에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소통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나의 힘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눠 주는 것.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 마음껏 펼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진실한 소통에서부터 혁신과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가 생각하는 '참된 소통'입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 만들기
 이웃 나눔 실천으로 혁신의 길을 열어 가고 있는 아주.
 아주가 '참된 소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9월 1일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 17층에서 열린 아주그룹 창립
 56주년 기념식은 파격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다. 아주인들이
 거침없이 풀어놓은 반짝이는 발상과 도전 이야기가 그러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격의 없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분위기가 그러했다. 56번째 생일을 맞은 아주의 아주 특별한
 혁신 이야기를 들어 보자. 글. 김미경 사진. 장호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단풍 드는
HINT! — 조류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것. 공기층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형식을 탈피하고 신선한
변화를 맞은 '창립 기념식',
아주인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플랫폼 '무지개'까지

'개척자정신'과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아주의 멈추지 않는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주 56주년 창립 기념식 'AND 2016'
56년 아주,
아주 특별한 혁신을
생각한다!

9월 1일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 17층에서 열린 아주그룹 창립
56주년 기념식은 파격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다. 아주인들이
거침없이 풀어놓은 반짝이는 발상과 도전 이야기가 그러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격의 없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분위기가 그러했다. 56번째 생일을 맞은 아주의 아주 특별한
혁신 이야기를 들어 보자. 글. 김미경 사진. 장호





1 2

1. 고객 감동 사례를 발표하며 뜨거운 합성을 받은 아주네트웍스 조용석 매니저, 아주오토서비스 고재승 매니저.
2. 'DEAI DEAI'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아주저축은행 박한영 매니저.



아주 특별한 창립 기념식 'AND 2016'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본사, 창립 5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건자재, 금융, 호텔, 자동차 유통, 부동산 및 해외자원 개발 부문 등 아주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장소가 협소해 90여 명의 임직원만 참석했으나, 직접 자리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기념식 전 과정은 생방송으로 중계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창립 기념식과 달리 자리 배치를 자유롭게 구성한 데다, 기념식 중간중간에 큰 호응이 터져 나오고, 기념 셀카를 찍는 등 분위기도 자유로워 공연장을 연상케 했다. 창립 기념식이라 하면 으레 떠오르게 마련인 '지루하고 딱딱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구성원 개개인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

(Tomorrow)의 아주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내일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준비한 창립 기념식. 첫 시작을 연 문규영 회장의 격려사 또한 매우 특별했다. "지난 56년 동안 두려움 없이 변화와 도전에 앞장서 준 임직원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앞으로 100년 아주를 위해 다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힘차게 도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혁신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며 56주년 창립 기념식의 새로운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시도한 것이라는 말로 이번 창립 기념식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주 특별한 아주인의 재기 발랄 콘퍼런스

드디어 56주년 창립 기념식의 핵심 콘텐츠 AND 발표회를 시작했다. AND(AJU Never-ending Dreams)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제가 제안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에 회사가 귀 기울여 주고, 직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창립 기념식이었습니다. ——— 아주캐피탈 경영전략팀 · 권순호 매니저

3 4
5

3. 'TR Travel Route'라는 글로벌 여행 정보 SNS 신사업을 제안한 아주캐피탈 박상현 매니저.
- 4,5. 경영진과 매니저 모두가 한데 모여 협업과 화합의 상징으로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인 성장을 지향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이를 붙인 행사로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 신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스토리텔링형 콘퍼런스로 진행했다. 직책과 사업부에 관계없이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발표를 이어갔다.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이나, 글로벌 여행 정보 전문 SNS 등 반짝이는 신사업 아이디어에서부터 고객 만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개인적인 꿈과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그야말로 '형식을 파괴한 신선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기념식에 참석한 아주큐엠에스 R&D팀 조창은 선임은 "아주의 창업 이념인 '개혁자정신'과 '같이의 가치'를 깨닫게 된 창립 기념식이었다"며 "직원들의 열띤 콘퍼런스가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일어나게 만드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부 솔루션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와 불편함을 자체 개발을 통해 해소한 아주큐엠에스 김지한 책임의 혁신 사례, 업무 중 발생한 고객감동 사례를 소개하며 고객이 만족할 때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고 밝힌 아주오토서비스 고재승 매니저의 경험 등이 발표될 때는 격려의 박수와 합성을 보내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듯 아주의 56번째 생일 잔치는 무겁지 않으나 진중한 깊이가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소중한 가치를 나누며 무르익어 갔다.

아주 특별한 혁신 플랫폼 '무지개' 그리고 새로운 56년

아주의 기업 PR 콜라베이션 프로젝트로 진행한 'Creative A'와 혁신 플랫폼 '무지개' 소개도 이번 창립 기념식을 더욱 빛나게 했다. 'Creative A' 프로젝트 팀원으로 활동한 대학생 전민지(이화여대 국문과), 김태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씨는 아주를 표현한 창작물을 발표해 임직원의 공감을 얻었다. 자유롭고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는 김태영 씨는 협업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경험했으며, 뜻깊은 창립 기념식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아주인들의 콘퍼런스가 끝난 뒤에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혁신 플랫폼 무지개에 대한 소개와 오픈식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무지개는 임직원의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는 물론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한데 버무려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한 사내



구성원 개개인이
내 일을 통해
내일의 아주를 만든다

내일을 디자인하다
AND 2016



함께 참여하고, 생각하고, 공유하는 형태라서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주의 미래를 엿보고, 아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 의미 있는 기념식이었다. ——— 아주 자동차부문 문정휴 본부장

1 | 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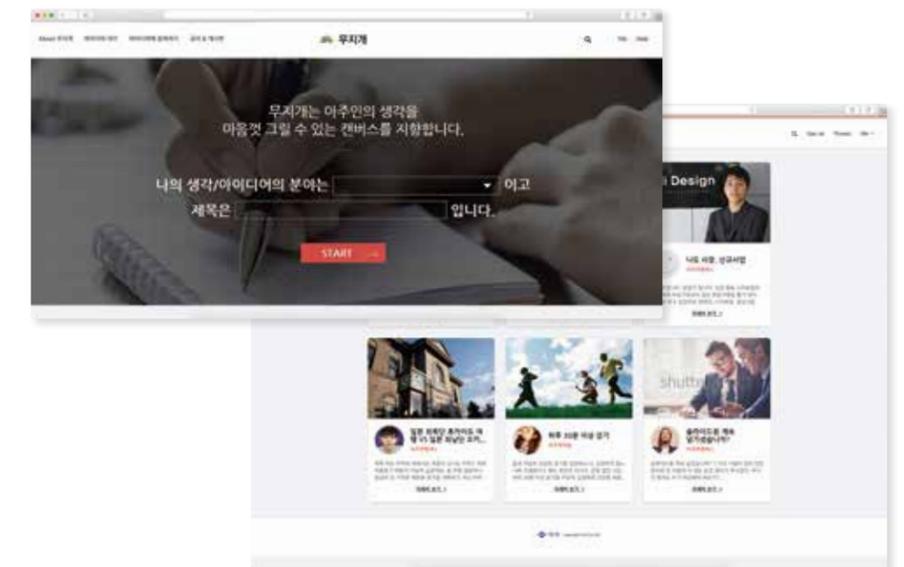
1. '공모벤처펀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아주IB투자 김연태 매니저.
2. 문규영 회장과 임직원들이 발표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3. 혁신 플랫폼 '무지개' 화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지난 5월 웹진 안의 작은 게시판으로 출발해 이날 창립 기념식을 통해 플랫폼을 오픈하며 시연식을 가졌다. 임직원 누구라도 아이디어 제안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목표 설정부터 실행, 지원까지 쌍방향 참여가 가능한 혁신 플랫폼이어서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어 AND 콘퍼런스에 참여한 8개 팀 11명 전원에게 해외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순위를 매겨 일부 참가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전원에게 아주의 인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작은 혁신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56주년 창립 기념식 피날레는 오찬 세리머니로 장식했다. '협업'과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비빔밥 만들기를 진행한 것. 문 회장이 "아주!"라고 힘차게 선창하자 직원들이 "좋아요!"를 외치며 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매니저 등이 함께 어우러져 비비기 세리머니에 나섰다. 이후 모두가 모여 앉아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변화를 이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임을 느끼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56년을 달려오면서도 많지 않은 아주의 '개척자정신'과 56주년 창립 기념식을 통해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된 '변화를 향한 도전'의 가치가 실현되어 앞으로 새로운 아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고대한다.



제9기 아주해외봉사단의 베트남 봉사활동

우리의 땀방울이 일궈 낸 소중한 가치

제9기 아주해외봉사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 베트남 빈롱 시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아주산업,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IB투자, 아주호텔앤리조트, 아주오토리움 등 계열사 임직원 20명이 여름휴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참석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희망과 꿈 그리고 행복을 전한 이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함께했다. 글. 한울 사진. 전석병



1 3
2

1.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발 전 다같이 한 컷.
2. 현지 주민의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입성!
3. 불타오르는 집중력으로 꼼꼼히 페인트칠을 하는 아주큐엔에스 R&D팀 울루그백 선임.



여름휴가를 기꺼이 반납하고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떠나온 20명의 아주해외봉사단의 얼굴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흘렀다. 이들이 찾은 곳은 호찌민에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빈롱 시. 5박 7일 동안 더위와 싸우며 강행군을 해야 하므로 몸은 몹시 고단할지 몰라도, '나눔'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이들의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터였다.

아주해외봉사단이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찾은 건 2011년. 그간 발전이 없지는 않았으나 도시 외곽에 사는 아동들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의 꿈과 행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재단'이라는 아주복지재단의 비전에 걸맞게 올해의 봉사활동도 빈곤 계층 및 아동·청소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런 점에서 빈롱 시는 이들의 도움이 절실한 곳이다. 특히 빈롱 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중요 비즈니스 거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해외 사업에서 앞으로 더 많은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아주에는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꿈과 희망 품은 따뜻한 공간을 짓다

베트남에서의 첫 활동은 '사랑의 집 짓기'. 이번 봉사활동에 앞서 아주해외봉사단은 베트남 교육청과 사전 협의해 빈롱 지역의 빈곤 가정 2곳을 선정, 새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7월 25일과 27일, 1·2차에 걸쳐 진행된 집 짓기 활동은 베트남 빈곤 가정에 집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꿈의 터전까지 마련해 주는 일이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없어 슬픔에 잠겨야 했던 이들이 환한 웃음을 찾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올해 선정된 빈곤 가정의 집은 모두 메콩강 인근 저지대 땅바닥에 임시 기둥을 세우고 야자잎으로 지붕을 대충 덮어 물이 들

어오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빈롱 시 외곽에서는 벗짚으로 엮어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한 집들이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주해외봉사단은 빈곤 가정 2곳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다. 처음에는 튼튼하게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손도 빨라지고 작업도 매끈해졌다.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실내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 손에 붓을 쥔 아주해외봉사단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흘렀다. 집에 알록달록한 컬러를 입히자 활기가 살아났다. 현지인 가족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우기에 폭우로 집이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은 "아주의 도움으로 이제 멋진 집에 살게 되었다"며 연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꿈과 희망을 짓는 일은 집뿐만이 아니었다. 7월 26일에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유관 기관 직원,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과 어린이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푸득유치원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봉사단원들은 폭우로 집을 잃은 두 가족을 위해 힘을 합쳐 벽돌을 하나씩 쌓으며 따뜻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뚝뚝 찌는 날씨에 다들 경험이 부족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칠 때마다 서로 먼저 논으로 들어가 삽질을 하겠다고 나서며 단원들끼리 협동하고 배려해 처음 계획했던 작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빈롱 시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센터에는 고아, 유기아동, 장애아동 및 청소년, 고령제 피해자, 무연고 노인 등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 봉사단은 잡채와 전, 불고기 등을 직접 만들어 이들과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을 전했다. 그리고 센터 내에 위치한 화센 유치원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전달하기도 했다.

사람과 사람, 가까워지다

이번 봉사활동은 2곳의 베트남 빈곤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한 '사랑의 집 짓기' 활동과 베트남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유치원의 '신축 기공식', 깨끗하고 안정된 식수 공급을 위한 '농촌 상수도 공사', '사회복지센터 방문'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물론 아주산업 베트남 사업장을 방문해 아주의 해외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봉사 일정 내내 도움을 주며 함께한 현지 대학 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제9기 아주해외봉사단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무엇보다 현지인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노력했다. 아주캐피탈 개인금융본부 고장현 본부장은 “유치원 기공식에서 보았던 100여 명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잊을 수 없다. 기공식에 함께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이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또 아주에 대해 과연 어떤 기억을 가질까 생각하게 되었다”며 미소를 머금었다.

봉사단은 한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아주가 더 좋은 관계를 다지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자는 데 뜻을 모아 기공식 후 미니 운동회를 여는 등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한복 입고 사진 찍기, 팔빙수 만들어 나눠 먹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등도 함께 진행해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이 푸득유치원 기공식 현장을 가득 채운 날이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사의 소중한 첫 삽을 뜨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해 학업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아이들이 앞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유치원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의미 깊은 자리였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소중한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땀방울이 모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주해외봉사단이 몸소 체득한 사실이다. 빈롱 시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를 들어가면 만나는 짠안마을. 깨끗한 식수를 얻기 쉽지 않은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매콩강에서 물을 얻거나 빗물을 받아 사용할 정도로 상수도 시설이 열악한데, 시골로 깊이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짠안마을도 그런 곳 중 하나였다.

7월 27일 아주해외봉사단원들은 짠안마을로 이동해 3인 1조가 되어 눈두렁 옆으로 고랑을 파서 상수도관을 묻는 작업을 진행했다. 50m의 구간을 50cm 깊이로 파는 일이었다.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시골이라 100%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고 그나마 땅을 팔 수 있는 도구인 삽마저도 온전치 않았다. 논이 특성상 흙을 퍼내도 땅이 다시 물속에 묻히는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작업은 더욱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인에게 포기란 없었다. 현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애를 썼다.

아주호텔앤리조트 HR팀 김유리나 매니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몸이 아픈 현지인들이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행복을 나눠 드리러 간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행복을 얻어 왔습니다”라면서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지인들과의 추억뿐 아니라 봉사단원 사이의 끈끈한 동지에 또한 큰 수확이었다. 고장현 본부장과 박태준 매니저는 “서로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료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봉사활동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에는 아주해외봉사단이 남기고 온 아름다운 흔적이 가득하다. 봉사단원들의 땀방울이 꿈과 희망을 짓는 밑거름이 되었다. 꿈과 희망은 나눔으로 커진다는 것. 봉사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진실이다. 앞으로 아주해외봉사단은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
- 2 3
- 4 5 6

1. 빈곤 가정의 새로운 보금자리 외벽을 깔끔하게 칠한 봉사단원들.
2.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예쁜 네일 아트 봉사.
3. 힘든 봉사 일정 속에서도 환한 표정으로 봉사에 임한 봉사 천사들.
4. 땀별 아래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다.
5. 푸득유치원 기공식 이벤트로 진행한 한복 입고 사진 찍기.
6. 빈곤 가정의 새집 단장을 위해 꼼꼼히 페인트를 바르고 있다.

단순 봉사활동만 하지 않고 베트남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참여자 모두 색다른 문화 체험에 즐거워했다.



AJU NEWS

Volume 46 아주 뉴스

「아주 좋은 날」 2016 AUTUMN

www.aju.co.kr

【아주네트웍스】 믿고 탈 수 있는 재규어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전시장 APPROVED 오픈



아주네트웍스가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본격적인 중고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주네트웍스는 재규어 랜드로버와 손을 잡고 지난 7월 인천 가좌동 엠파크타워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 'APPROVED'를 오픈했다. 'APPROVED' 전시장은 최대 15대까지 차량 전시가 가능한 곳으로, 현재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디스커버리 4 등 총 5대가 전시되어 있으며, 재규어 XE모델 입고 예정에 있다.

이번 인증 중고차 전시장 오픈은 아주에서 처음 시작하는 중고차 사업으로, 신규사업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험무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단지 내 입점하여 중고차 시장에 재규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고객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무엇보다 차량의 상태, 구입 후 A/S등을 신경 쓰기 마련. 이 점을 주목한 'APPROVED'는 전문 테크니션이 165가지 항목의 기술 점검과 차량 주행 및 서비스 이력 점검을 마친 차량만을 선보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고 있다. 또한 2년간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와 신차와 동일한 A/S 보증 서비스 등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 :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58 엠파크타워 1층
영업시간 : 오전 9시~오후 8시
문의 : 032-575-0588

재규어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란?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인증한 믿을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재규어 랜드로버 전문 테크니션이 직접 총 165가지 항목의 기술 점검과 차량 주행 및 서비스 이력 점검을 마친 차량이다.

차를 구입한 후에는 2년간 또는 차량 누적 주행거리 10만km 중 선도래를 기준으로 무상보증수리 프로그램 및 연중무휴 긴급출동 서비스도 제공, 신차 수준의 사후 관리와 철저한 A/S 보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아주】 한글날 맞아 ‘한글로 나만의 얼굴 모양 이모티콘 만들기’ 캠페인 시행

카카오톡



페이스북



우리나라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아주 좋은 날’로 정하고, 그날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온 아주그룹이 한글날을 맞아 ‘19+21 한글초성 프로필 캠페인’을 시행했다. 아주는 캠페인 참가자 전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 프로필 이미지는 한글의 19개 자음과 21개 모음 중, 참가자 이름의 초성과 모음만을 활용하여 얼굴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작되었다. 지난 10월 3일부터 약 2주간 진행한 이 캠페인은 한글 반포 570주년

의 의미를 담아 참가 목표 인원을 5,700명으로 정했으며, 이 중 190명을 추첨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필 제작 의뢰를 통해 제공받은 프로필 이미지를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한 뒤 인증샷을 보낸 참가자 중 210명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주그룹은 지난 3.1절에도 영화 <귀향> 무료 관람권을 증정하는 SNS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경일이나 기념일의 가치를 재조명해 왔다. 아주그룹은 단순 공휴일 중 하루가 아닌 그날의 역사적인 의미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네트웍스】 고객중심의 ‘JAGUAR LAND ROVER Lucky Saturday’ 이벤트 마련

재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인 아주네트웍스가 고객을 위한 특별한 ‘JAGUAR LAND ROVER Lucky Saturday’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양천구에서 임시로 운영하던 전시장을 강서구로 확장 이전하며 마련한 자리다.

지난 9월 24일 토요일 강서목동전시장에서 진행한 Lucky Saturday는 온전히 고객을 위한 오픈 행사를 만들자는 취지에 걸맞게 재규어 랜드로버 전 차종 시승 행사와 100만 원 상당

의 호텔 숙박권, 여행상품권, 재규어 랜드로버 골프백 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건 Lucky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네일 케어 및 핸드 마사지 등의 고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사전 예약한 130팀(약 250명)은 시승 행사를 통해 재규어 랜드로버의 뛰어난 성능을 직접 체험했으며, 3층에 마련해 놓은 플라로이드 기념 사진 촬영, 디지털 캐리커처 등의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주캐피탈】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 확대 시행

아주캐피탈은 지난 9월 26일 경희대에서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금융 이해도가 낮은 은퇴 장년층을 위한 교육을 운영해 온 아주캐피탈이 청년층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날 금융교육은 아주캐피탈 이윤종 사장이 ‘미래의 금융전문가를 위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대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 CEO가 바라보는 인재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 외에도 재무설계,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사회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도 교육했다. 1년간 총 70회의 강연을 실시해 2,500여 명을 교육한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은 아주캐피탈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전·현직 전문 금융인 강사가 생생한 금융 정보를 전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아주캐피탈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군인까지 대상을 넓혀 가며 금융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예방 교육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융 교육 수강 문의 :
아주캐피탈 커뮤니케이션팀(02-2017-5396)



[아주복지재단] 중증장애자녀 부모와 함께한 ‘제16회 아주 특별한 여행’



아주복지재단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박 2일간 부산지역 자폐성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서울로 초대해 ‘제16회 쉼과 나눔이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진행했다. ‘아주 특별한 여행, 서울투어’는 중증장애자녀 양육으로 오랜 시간 여행이나 여가시간을 가져본 적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 아주복지재단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행을 위해 서울로 초청받은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서울타워 등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를 둘러보았으며, 뮤지컬 <그날들> 관람 등의 이벤트로 정서적 피

로감을 덜어내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에는 여행기간 내 참가자의 자녀들을 부산지역 내 인증된 장애인 돌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양육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자녀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참가자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육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감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며 단순한 여행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선물받았다.

[아주캐피탈] 중대형 승용 4종 장기 렌터카 특가 상품 출시

연말 인사이드 등으로 장기 렌터카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아주캐피탈이 올해 말까지 렌터카를 연중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터카 특가 상품을 내놓았다. 중대형 승용 4종 차량(K7, 쏘나타, SM6, 말리부)이 대상이며, 이 상품을 이용하는 전 고객에게 블랙박스 및 선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차종 구입과 차량 등록에서부터 보험, 세금 납부, 차량 매각까지 차량 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주캐피탈 장

기 렌터카는 이 외에도 사고 수리 및 긴급 출동 서비스와 옵션 선택에 따른 방문 예방 점검 및 고장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 렌터카는 차량 관리를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고, 만기 시 인수 또는 반납 방법이 편리하다는 장점 덕분에 사업자 또는 법인 고객에게 인기가 좋으며, 초기 차량 구입 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운전자나 LPG 차량 운영을 원하는 고객 사이에서는 새로운 차량 마련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 차를 마련하는 새로운 방법!
아주캐피탈 장기 렌터카

초기 부담 ZERO	일반인도 LPG 가능	사고 나도 보험료 할증 ZERO	자유로운 인수 반납
---------------	----------------	-------------------------	---------------

48개월간 월 렌트료(기본형 모델 선수금 30% 조건)
K7(차량가 3,010만 원 기준) 35만 원
쏘나타(차량가 2,255만 원 기준) 28만 원
SM6(차량가 2,420만 원 기준) 33만 원
말리부(차량가 2,388만 원 기준) 32만 원
 * 계약 종료 시 타던 차량을 인수하거나 반납 가능

[아주산업] 공영해운 인수 본 계약 체결

아주산업이 건자재 사업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식구를 맞게 되었다. 지난 9월 9일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사로 바다골재를 전문으로 하는 공영해운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것. 아주산업은 지난 7월 21일 공영해운 본입찰에 참여한 후 8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후 약 15일간의 본실사를 거쳐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인수는 공영해운이 안정적인 매출과 탄탄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아주산업

전체 바다골재 생산량이 증가하고 지역 최대 규모의 골재업체로서 향후 시너지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에 설립된 공영해운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공영사의 자회사로, 2011년 평택항의 모래 전용 부두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과도한 차입금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14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 6월 매물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골재 수요처 확보와 평택과 충청 및 남부권역의 탄탄

한 영업 인프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등 강점을 가지고 있어 아주산업의 전체 골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주산업은 기존 인천북항사업소와 연계한 바다 골재 세척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영해운의 네트워크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영업망에 적용해 생산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아주오토리움] 볼보자동차 안양전시장 오픈



아주오토리움은 볼보자동차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자 올해 9월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전시장을 임시 오픈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볼보자동차의 새로운 딜러로 선정된 아주오토리움이 일산과 목동 지역에 전시장을 오픈한 데 이어 세 번째 마련한 전시장. 그동안 이

들 전시장은 스웨덴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고객 편의 시설 등을 갖춘 만큼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볼보자동차의 매력을 홍보하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혀 왔다. 이번에 문을 연 안양전시장은 약 1,107㎡(약 335평) 규모로 총 3층으로 구성

해 1층은 차량 전시공간과 인포데스크가 자리하고, 2층은 6대까지 전시가 가능한 규모의 공간으로, 3층은 사무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후 서비스센터를 마련해 간단한 경정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안양은 경기 북부와 남부, 강남, 강서, 분당, 산본, 의왕, 광명, 용인까지 연결이 용이한 사통팔달 교통 입지를 갖춘 곳으로, 강남, 분당에 집중 분포되어 있던 수입차 브랜드 판매망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올 12월 말 준공에 앞서 임시 오픈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주오토리움은 활발한 홍보, 광고 활동을 통해 안양 전 지역에 볼보자동차를 알리고, 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볼보 리테일 익스피리언스’를 적용해 건물 외관의 색이 변화하는 신비로우면서도 감성적인 느낌을 살린 안양전시장은 전문성을 갖춘 매니저들과 함께 볼보자동차를 찾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이다.

[아주산업] 글로벌 인재 성장의 밑거름, 글로벌 아카데미



제4회 글로벌 아카데미의 첫 모임이 지난 8월 19일 아주 본사 청남빌딩 17층 혁신룸에서 있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아주산업이 매년 해외 사업 진출에 따른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내 교육 과정의 일환이다. 2013년에

는 어학과 해외 직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고, 2014년에는 해외 문화에 대한 해외 탐방 과정을 추가했다. 또 2015년에는 무역, 신사업 기획 등의 비즈니스 과정을 강화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추가하는 등 실제 업무에 도

움이 되는 깊이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해 왔다. 2016년 글로벌 아카데미는 어학 및 비즈니스 과정을 보완했으며, 특히 11월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보고, 현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특별한 시간도 갖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생들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외국어 수업, 콘크리트 기술 교육, 글로벌 협상 스킬 강의, 기초 회계 과정, SAP 모듈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글로벌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아주산업의 매니저들은 현재 해외 각 사업장에서 톡톡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글로벌 인재육성의 산실인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가진 이번 교육생들 또한 향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예정이다.

독자들과 소통하는 아주가 되겠습니다

 'insight' 칼럼 '세상을 바꾼 퍼스트 무버, 관습과 차별을 깬 여성들' 글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 여성들의 혁신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다른 시선의 힘을 보면서 그동안 나는 여성이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여성이니까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라고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유리천장의 견고함을 깨뜨릴 수 있는 단단함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향원** 님 · insight

 황두진 건축가의 '무지개떡 건축'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건축가로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창의성은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의 설계 위에서 꽃피는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욱미** 님 · people

 엄마가 아주에서 기획한 장애아동 어머니 여행을 갔다 오셔서 관련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는데, 취지가 참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다녀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호텔에 가니 임직원분이 다 나와 인사해 주시고, 대접도 잘해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기** 님 · aju sharing

 『아주 좋은 날』은 정말 저에게 아주 좋은 날을 선물해 주네요. 휴먼이 있고, 자연이 있고, 음식이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아주 좋은 날』 감사히 즐겁게 잘 봤습니다. 사실 핑계지만 일 때문에 책을 읽을 여유가 많지 않은데, 『아주 좋은 날』을 통해 이렇게 유익한 마음의 양식을 얻어 갑니다. **이배선** 님

더 나은 『아주 좋은 날』을 위해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 | |
|--|---|
|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조향원 님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유재범 님 서울 관악구 행운 1길, 박현 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이욱미 님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박용은 님 서울시 종로구 낙산 3길 | 스타벅스 기프트카드(2만 원권)
임현정 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이슬기 님 강원 원주시 백간길, 이배선 님 부산시 사하구 대대낙조 2길, 김록주 님 강원 강릉시 경강로, 이정진 님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

지난 호 IDEA 정답 공개
멀리서 봤을 때는 차마 몰랐던 새로운 모습. 과연 이 사진 속 물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HINT! 몸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한 조각, 성장하면서 커지는 OO의 나이테로 나이를 추측할 수 있다.



정답 : 물고기의 비늘
물고기의 비늘을 확대해 찍은 것입니다.

정답을 맞으신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양정은 님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권순만 님 부산시 사하구 감내로



창조와 혁신, 개방과 공유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이 시대, 다양한 생각이 빛어낸 융합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산업	아주베트남	아주캄보디아	브이샘	아주지오택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아주IB투자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오토서비스	아주호텔앤리조트
하얏트리젠시제주	아주프론티어	아주글로벌	아주큐엠에스	아주복지재단	

The universe is change; our life is what our thoughts make it.

만물은 변화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진정한 여행 글. 나짐 히크메트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가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뜨지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석곡
그림 송훈

2016년 1년의 『아주좋은날』을 돌아보며

『아주 좋은 날』은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은 『아주 좋은 날』을 더욱 유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그룹 홈페이지(www.aju.c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감사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1. 아래 독자님의 기본 정보에 체크해 주세요.

-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구독 경로 ① 아주그룹 임직원 ② 임직원 가족 ③ 아주그룹 및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 ④ 아주그룹 및 계열사 고객 ⑤ 지인의 추천 ⑥ 기타 ()
구독 기간 ① 처음 구독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④ 2년 이상

2. 『아주 좋은 날』을 어떤 방법으로 구독하시나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오프라인(우편 발송) ② 홈페이지(e-book 서비스)
③ 모바일(전용 애플리케이션) ④ 기타

3. 『아주 좋은 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아주 좋은 날』을 구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주에 대한 기업 호감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매우 호감이 간다. ② 호감이 가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호감이 가지 않는다. ⑤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아주좋은날』 vol.46 AUTUMN을 읽고 나서

『아주 좋은 날』 vol.46을 읽고 난 소감을 적어 주십시오.

이번 호 기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과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이번 호 기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IDEA 페이지의 정답을 적어 주세요.

아주 사외보 『아주 좋은 날』 고객정보수집동의 약관

‘아주그룹’(http://www.aju.co.kr 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취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신청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2. 수집목적

성명, 주소 : 정기구독 배송을 위한 배송지의 확보
전화번호 : 경품 배송 시 연락처의 확보

3.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보존 근거 : 회사 내부 방침
보존 기간 : 사용자 요구 시 즉시 파기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사외보 배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제공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Row 1: 동아DM, 발행물 배송, 성명, 주소,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5. 『아주 좋은 날』 사외보 신청 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주그룹 홈페이지(www.aju.co.kr)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님의 정보수집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아주 좋은 날』 배송이 어렵습니다. 구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확인 후, 동의 항목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아주좋은날』 구독 신청서

(필수 기재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해당화
그림 송훈

명 합 열 서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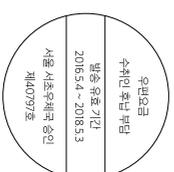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 □ □ □ □ □ □ □



이국풍은 나
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아주 커뮤니케이션센터
06626